

202402

수  
마  
나  
마  
영  
심  
꿈  
꿈



2024

# 교회학교 및 소망부 겨울 수련회

부서		주제	일시	장소
영유아유치팀	유치1,2부 유아유치3부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 (마 6:9-13)	2월 24일(토) 2월 25일(주일)	선교관 1층 유치부실
아동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영어아동부	다함께 소망키즈 온 가족 체육 대회 (눅 2:52)	2월 17일(토)	잠실 학생체육관
청소년팀	중등부 고등부	새삼스럽게 (렘 4:24)	2월 16일(금) - 2월 17일(토)	소망수양관
대학부		flow:er (고후 2:15)	2월 5일(월) - 2월 7일(수)	
청년부		복음이: 행위를 되찾다 (갈 6:15)	4월 12일(금) - 4월 14(주일)	
청년플러스		복음이 [ ___ ] 시작하다 (막 1:1)	2월 2일(금) - 2월 3일(토)	
소망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이루소서 (눅 17:21, 고전 12:12)	2월 23일(금) - 2월 24일(토)	

•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안내를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202402



© 2024 소망교회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목상집(소망말씀나눔)은 서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CONTENTS

February | 2024



## FAITH

하늘을 여는 기도  
다시, 주의 부르심 앞에서 4

깊어지는 영성  
그 말씀이 있는가 | 김정진 6

목상에 붙임  
모든 염려를 당신께 | 칼 바르트 10

## WORD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준비·이해·적용·기도 14

말씀 개관  
역대하 16

2월 본문  
역대하·예레미야 20

1주(2/5) | 2주(2/12) | 3주(2/19) | 4주(2/26)



## COMMUNICATION

땅끝에서 온 편지 더 깊이 다가가기 위하여   이성욱·오영미	40	그림묵상 좁은 문   이효연	192
소망사랑방 어머니의 기도   김희정	80	예배자의 길 2월, 우리의 고백   김미혜·김성진·최창실	194
신앙과 삶 삼위일체 하나님   김경래	120	가정탐구 이름과 감탄   홍인종	198
공간공감 경신학교   홍성찬	158	일과 영성 좋은 사람이 됩시다   방선기	202
이달의 기도 주의 부르심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86	소망뉴스 1월 소식	206
소망마당 아동팀에 주실 은혜를 기대해요   교회학교 아동팀	188		

## 다시, 주의 부르심 앞에서

해가 바뀔 때마다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에  
내 뜻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마는 우리입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지는 영성



## 그 말씀이 있는가

글 김경진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는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까? 올해 저는 여러분 심중에 적어도 한 말씀이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저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레미제라블 소설 잘 아시죠? 소설에 등장하는 장발장은 빵 몇 개를 훔친 이유로 19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교도소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을 겁니다. 출소 이후 새로운 삶을 살고자 나름대로 시도는 해 보지만 전과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성당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미리엘 주교를 만납니다. 그로부터 아주 융성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장발장은 주교가 아끼던 은 식기를 훔쳐서 도망갑니다. 좋은 대우는 받았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히고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자 경찰에 붙들려 미리엘 주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상황을 파악한 주교가 말합니다. “왜 내가 준 은 촛대를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 경찰이 돌아간 후에 이어서 말합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그대는 더 이상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이 있으니 그 귀중한 은을 반드시 정직한 사람이 되는 데 써야 하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 노아를 소개하며, 그가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너는 이제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의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집을 떠났지만 100세의 나이에 이르도록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을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새겨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도다!”(딤펴 1:5)

교회사 속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한때 방황한 어거스틴은 로마서 말씀(13:12)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구원 얻는 방법에 몰두하며 고통스러워하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그저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히 4:12).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평생에 붙잡을 ‘그’ 말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막 4:23) 우리에게 ‘그’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갈급한 마음,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 ...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올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업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Meditation | 묵상에 붙임

# 모든 염려를 당신께

글 칼 바르트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판단으로 우리가 서며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무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힘이자 능력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 재물에 대한 믿음을  
떨쳐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당신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며,  
확신 가운데 이생과 영원한 구원을  
당신의 손에 맡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당신의 것이 되며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로지 당신 안에서만 안식하며  
당신의 기쁨으로부터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하소서.

당신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완성하실 분이시니  
주님, 당신께 복종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당신의 부르심을 따르게 하소서.

마침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외아들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쁨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당신을 찾으며  
모든 염려를 당신께 맡기게 하소서. 아멘.

- 칼 바르트 『설교자의 기도』(비아, 2019) 154~155쪽.

# WORD

---

역대하 ·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망말씀나눔 본문에 따른 새벽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App Store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안드로이드폰 : T Store 혹은 Google Play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문의 : 교회사무실 02-512-9191 (내선 141~145)

## 말씀 속으로

**1** **역대하 30:1-12**

**목표** 사사기 440 여백들의 제사장을 위하여

---

**1**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예리과와 므낫세에 편지 보내어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유다의 여로보암 왕의 제사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다.  
Hesekiah sent word to all Israel and Judah and also wrote letters to Ephraim and Manasse, inviting them to come to the temple of the LORD in Jerusalem and celebrate the Passover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2** 왕이 백제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유대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다.  
The king and his officials and the whole assembly in Jerusalem decided to celebrate the Passover in the second month.

**3**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역성도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 않았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y had not been able to celebrate it at the regular time because not enough priests had consecrated themselves and the people had not assembled in Jerusalem.

20

### 1단계 : 준비

####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

말씀 앞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놓거나 묵상에 방해가 될 것 같고 여겨지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 역대하(30~36장)

딸, 내 백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날갯죽지 아래에서 태어난 백성.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온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언약 아래에 태어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들을 향한 부르심의 말씀은 끝이 없으나,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굳은 목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니 ….

그러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아!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노라!”(대하 7:14)

주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30:1; 34:33)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던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유월절로 백성들을 부른다.

그 부름에 너도나도 하나님께 나아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찬송 부르니

그곳이 곧 하늘의 축재요, 본래의 존재를 회복하는 시간과 공간이 펼쳐진다.

그들의 제물의 향기와 기도가 하늘 위에 상납 되니,

백성들과 온 땅이 유월절 은혜의 비를 맞으며 회복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그 영광의 감동이 추억이라 불리기도 전에

다시 이스라엘의 목이 굳어지고 교만과 무지의 먹구름이 깔리니

그들의 죄악이 땅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온 피조물에게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의 악취가 밴다.

곧, 그들의 나무가 꺾이어질 것이며 그들을 향한 호느낌의 탄식이 이어질 것이다.

아! 예루살렘!

스스로 수치를 만들어 내며 한없는 은혜를 자기의 미련한 것으로 만들었구나!

우둔한 지도자들 아래에서 그들이 사슬에 묶여 포로가 되고,

여호와의 성전 그릇들이 빼앗겨지며, 온 땅과 성전이 황폐함을 당한다.

그러나 그 아픈 시간, 곧 70년간의 시간이 끝나갈 때에 약속의 빛이 다시 도래하리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다음 페이지로 이어진다.

### 한눈에 보는 이달의 본문

1~3일 주간		
1(목)	역대하 30:1~12	히스기야의 유월절 준비
2(금)	30:13~27	유월절의 회복과 기쁨
3(토)	예레미야 7:1~20	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
5~10일 주간		
5(월)	예레미야 7:21~8:3	유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향한 경고
6(화)	역대하 31:1~10	히스기야의 개혁 上
7(수)	31:11~21	히스기야의 개혁 下
8(목)	32:1~15	산헤립의 위협과 히스기야의 신뢰
9(금)	32:16~23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
10(토)	예레미야 8:4~17	예루살렘의 죄와 벌
12~17일 주간		
12(월)	예레미야 8:18~9:9	예레미야의 탄식
13(화)	역대하 32:24~33	히스기야의 병과 죽음
14(수)	33:1~13	유다 왕 므낫세의 역사
15(목)	33:14~25	유다 왕 므낫세의 말년과 유다 왕 아몬의 악
16(금)	34:1~13	유다 왕 요시아의 성전 보수
17(토)	예레미야 9:10~26	예루살렘을 향한 애가
19~24일 주간		
19(월)	예레미야 10:1~16	우상과 참 하나님 여호와
20(화)	역대하 34:14~28	율법책의 발견
21(수)	34:29~35:6	요시아의 유월절 준비
22(목)	35:7~15	요시아의 유월절
23(금)	35:16~27	요시아의 죽음
24(토)	예레미야 10:17~25	예루살렘의 탄식
26~29일 주간		
26(월)	예레미야 11:1~17	여호와와의 언약의 선포
27(화)	역대하 36:1~10	남유다 왕국의 말년 上
28(수)	36:11~21	남유다 왕국의 말년 下
29(목)	36:22~23	고레스의 귀국 명령

# 2

February 2024

SUN

MON

TUE

WED

4

5

6

7

11

12

13

14

사순절 시작(제의 수요일)

18

19

20

21

권사회 월례회

25

26

27

28

3	S	M	T	W	T	F	S
March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HU	FRI	SAT
1	2	3
8	9	10 설날
15	16	17
22	23 전반기 구역지도자 수련회	24
29		



# 1

목요일

## 역대하 30:1~12

오늘의 찬송 440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말씀 속으로

- 1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Hezekiah sent word to all Israel and Judah and also wrote letters to Ephraim and Manasseh, inviting them to come to the temple of the LORD in Jerusalem and celebrate the Passover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 2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The king and his officials and the whole assembly in Jerusalem decided to celebrate the Passover in the second month.

- 3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수 없었음이라

They had not been able to celebrate it at the regular time because not enough priests had consecrated themselves and the people had not assembled in Jerusalem.

---

4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The plan seemed right both to the king and to the whole assembly.

5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다

They decided to send a proclamation throughout Israel, from Beersheba to Dan, calling the people to come to Jerusalem and celebrate the Passover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It had not been celebrated in large numbers according to what was written.

6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렸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앗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At the king's command, couriers went throughout Israel and Judah with letters from the king and from his officials, which read: "People of Israel, return to the LORD,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Israel, that he may return to you who are left, who have escaped from the hand of the kings of Assyria.

7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Do not be like your parents and your fellow Israelites, who were unfaithful to the LORD, the God of their ancestors, so that he made them an object of horror, as you see.

- 8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Do not be stiff-necked, as your ancestors were; submit to the LORD. Come to his sanctuary, which he has consecrated forever. Serve the LORD your God, so that his fierce anger will turn away from you.

- 9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If you return to the LORD, then your fellow Israelites and your children will be shown compassion by their captors and will return to this land, for the LORD your God is gracious and compassionate. He will not turn his face from you if you return to him.”

- 10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The couriers went from town to town in Ephraim and Manasseh, as far as Zebulun, but people scorned and ridiculed them.

- 11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Nevertheless, some from Asher, Manasseh and Zebulun humbled themselves and went to Jerusalem.

---

---

12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Also in Judah the hand of God was on the people to give them unity of mind to carry out what the king and his officials had ordered, following the word of the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히스기야가 유월절에 초대합니다(1~9).**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던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이 첫째 달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마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2절). 온 회중들이 이를 좋게 여기며, 보발꾼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6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9절) 이 외침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호소입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흠어져 버린 ‘온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6절). 이 당시의 땅의 개념은 민족의 정체성이자 생명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땅의 회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다시 존재와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제대로 준비하고자 하는 의도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2. 백성들의 반응이 상반되고 있습니다(10~12).**

이렇게 보발꾼들이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각 지방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는 이미 ‘사로잡은 자’(9절)들에 의해 포로된 자들이 있을 때였으며, 이는 곧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점령당하여 상당수의 포로가 끌려간 이후를 의미합니다. 북쪽 진영에 의해 이방에 의한 역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치고 있는 이때에, 보발꾼들이 전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발꾼들을 조롱하거나 비웃으며(10절), 그 소식을 무시하며 자신에게 전해진 메시지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예루살렘에 나아왔습니다(11절). 이처럼 소식은 모두에게 주어지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 발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돌아오라는 부르심의 소식에 반응한 이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며 유월절을 치르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을 부른 것과 같이 우리도 첫 시작은 누군가의 인도와 도움으로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불러야 할 ‘흠어진 백성’을 떠올려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2. 이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롱하며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태도는 일관되어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7~11** <sup>7</sup>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sup>8</sup>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sup>9</sup>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sup>10</sup>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sup>11</sup>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 2

—  
금요일

## 역대하 30:13~27

오늘의 찬송 183 빈 들에 마른 풀같이

 말씀 속으로

- 13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A very large crowd of people assembled in Jerusalem to celebrate the Festival of Unleavened Bread in the second month.

- 14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They removed the altars in Jerusalem and cleared away the incense altars and threw them into the Kidron Valley.

- 15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와의 전에 이르러

They slaughtered the Passover lamb on the fourteenth day of the second month. The priests and the Levites were ashamed and consecrated themselves and brought burnt offerings to the temple of the LORD.

- 
- 16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Then they took up their regular positions as prescribed in the Law of Moses the man of God. The priests splashed against the altar the blood handed to them by the Levites.

- 17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Since many in the crowd had not consecrated themselves, the Levites had to kill the Passover lambs for all those who were not ceremonially clean and could not consecrate their lambs to the LORD.

- 18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블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Although most of the many people who came from Ephraim, Manasseh, Issachar and Zebulun had not purified themselves, yet they ate the Passover, contrary to what was written. But Hezekiah prayed for them, saying, "May the LORD, who is good, pardon everyone

- 19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who sets their heart on seeking God - the LORD, the God of their ancestors - even if they are not clean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sanctuary."

## 20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And the LORD heard Hezekiah and healed the people.

## 21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칠 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The Israelites who were present in Jerusalem celebrated the Festival of Unleavened Bread for seven days with great rejoicing, while the Levites and priests praised the LORD every day with resounding instruments dedicated to the LORD.

## 22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칠 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Hezekiah spoke encouragingly to all the Levites, who showed good understanding of the service of the LORD. For the seven days they ate their assigned portion and offered fellowship offerings and praised the LORD, the God of their ancestors.

## 23 온 회중이 다시 칠 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칠 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The whole assembly then agreed to celebrate the festival seven more days; so for another seven days they celebrated joyfully.

- 
- 24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 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Hezekiah king of Judah provided a thousand bulls and seven thousand sheep and goats for the assembly, and the officials provided them with a thousand bulls and ten thousand sheep and goats. A great number of priests consecrated themselves.

- 25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The entire assembly of Judah rejoiced, along with the priests and Levites and all who had assembled from Israel, including the foreigners who had come from Israel and also those who resided in Judah.

- 26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There was great joy in Jerusalem, for since the days of Solomon son of David king of Israel there had been nothing like this in Jerusalem.

- 27 그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The priests and the Levites stood to bless the people, and God heard them, for their prayer reached heaven, his holy dwelling plac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유월절에 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찾습니다(13~22).**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들은 먼저 각종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14절),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17절). 하지만 오랜만에 준비하는 유월절이라 그럴까요? 몇몇 이들이 깨끗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버리고 맙니다. 이는 잘못된 규례로, 유월절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히스기야가 나서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하옵소서.”(19절)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맺으신 약속,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7:14) 하신 말씀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행실의 결과를 떠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로서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으며 성대한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2. 히스기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성대히 지킵니다(23~27).**

온 회중이 많이 모이게 되자, 절기를 한 주 더 연장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온 회중’이 큰 기쁨으로 유월절을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전 칠 일 동안에는 성결하지 못하여 부끄러워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으나 두 번째 칠 일 동안에는 스스로 성결하게 한 이들이 많았습니다(24절). 성대한 유월절이 되자 유다와 북쪽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및 레위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기뻐하였습니다(25절). 이렇게 온 사람들이 모여 함께 성대한 절기를 보내는 모습은 마치 다윗과 솔로몬 때를 기억나게 할 정도입니다(26절). 온 사람들과 온 마음들이 모이자, 성대한 유월절이 되었고,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큰 즐거움 가운데 지도자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한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 기도가 거룩한 처소, 바로 하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27절).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본래의 성전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2.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3:23~25** <sup>23</sup>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sup>24</sup>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sup>25</sup> 주님께서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 3

—  
토요일

## 예레미야 7:1~20

오늘의 찬송 252 나의 죄를 씻기는

### 말씀 속으로

- 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This is the word that came to Jeremiah from the LORD:

- 2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Stand at the gate of the LORD’s house and there proclaim this message: “ ‘Hear the word of the LORD, all you people of Judah who come through these gates to worship the LORD.

- 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Reform your ways and your actions, and I will let you live in this place.

- 4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Do not trust in deceptive words and say, “This is the temple of the LORD, the temple of the LORD, the temple of the LORD!”

- 
- 5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If you really change your ways and your actions and deal with each other justly,

- 6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 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if you do not oppress the foreigner, the fatherless or the widow and do not shed innocent blood in this place, and if you do not follow other gods to your own harm,

- 7 내가 너희를 이 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then I will let you live in this place, in the land I gave your ancestors for ever and ever,

- 8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But look, you are trusting in deceptive words that are worthless,

- 9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Will you steal and murder, commit adultery and perjury, burn incense to Baal and follow other gods you have not known,

- 10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and then come and stand before me in this house, which bears my Name, and say, "We are safe" - safe to do all these detestable things?

- 11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Has this house, which bears my Name, become a den of robbers to you? But I have been watching! declares the LORD.

- 12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Go now to the place in Shiloh where I first made a dwelling for my Name, and see what I did to it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my people Israel.

- 13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While you were doing all these things, declares the LORD, I spoke to you again and again, but you did not listen; I called you, but you did not answer.

- 
- 14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 행하겠고

Therefore, what I did to Shiloh I will now do to the house that bears my Name, the temple you trust in, the place I gave to you and your ancestors.

- 15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I will thrust you from my presence, just as I did all your fellow Israelites, the people of Ephraim.'

- 16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So do not pray for this people nor offer any plea or petition for them; do not plead with me, for I will not listen to you.

- 17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Do you not see what they are doing in the towns of Judah and in the streets of Jerusalem?

- 18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The children gather wood, the fathers light the fire, and the women knead the dough and make cakes to offer to the Queen of Heaven. They pour out drink offerings to other gods to arouse my anger.

- 19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격노하게 함이나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But am I the one they are provoking? declares the LORD. Are they not rather harming themselves, to their own shame?

- 20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 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 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Therefore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My anger and my wrath will be poured out on this place - on man and beast, on the trees of the field and on the crops of your land - and it will burn and not be quenched.

---

---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에 있습니다(1~15).**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5절) 모든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곧 정의와 공의의 길이며,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음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익한 것에 의지하며(8절), 입으로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10절). 그들의 모순과 무지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실을 향하여 ‘가증한 일’, ‘역겨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결하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여기는 이들과 다름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의지하였지만, 성전 안에서의 삶이 모든 잘못된 행실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성전의 껍데기만을 의지하는 그들을 악하게 평가하십니다.

**2. 백성들의 수치가 땅에 사무치고 있습니다(16~20).**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무익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16절).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해서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차마 눈뜨고 바라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심지어 가족들이 힘을 합쳐하여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격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수치를 만들어 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백성들은 그 일이 무익한 일인지 모른 채 진노의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치는 넘치고 흘러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땅에 까지 스며들었으며, 그곳의 자연들도 함께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20절). 그러나 이렇게 진노가 격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는 헛된 것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헛된지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둔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2. 죄는 우리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과 모든 땅에까지 악영향을 끼칩니다.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의 죄악의 용서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1:5~10** <sup>5</sup>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sup>6</sup>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모든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sup>7</sup> 손수 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sup>8</sup>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sup>9</sup>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려롭다. <sup>10</sup>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 더 깊이 다가가기 위하여

글 이성욱·오영미 (캄보디아 선교사)

처음 캄보디아에 왔을 때 선배 선교사님들을 통해 “캄보디아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 “캄보디아 사람들은 배신을 잘해!”와 같은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크메르 루주의 킬링필드 학살’ 탓이라고들 하였으나, 캄보디아에 대해 깊이 공부하다 보니 그보다는 캄보디아에 남아 있는 오랜 관습과 그들의 문화를 잘못 아는 바람에 생긴 오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캄보디아를 깊이 공부하기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만들어 캄보디아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고전들이 캄보디아화<sup>1)</sup>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관차탄트라Panchatantra』라는 우화 모음집이 대표적입니다. 이 책에는 권모술수가 담긴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것이 캄보디아에서는 토끼 이야기로 전해져 있고, 이 토끼를 ‘지혜롭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독서 모임을 시작으로 2022년 8월에는 문화와선교연구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캄보디아의 역사, 문화, 종교 및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Spirit Worlds: Cambodia, the Buddha and Naga*라는 책을 번역하고 북토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을 짧게 소개하면, 교리로서의 불교가 아닌 캄보디아 일반 서민들에게 불교란 무엇인지, 민간신앙과 일상의 귀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책입니다. 귀신들에 대한 책이라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캄보디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책입니다.

캄보디아의 국교는 불교이며, 다양한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모두 윤회에 매여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반복하는 신입니다. 이 신적 존재를 넘어 절대무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불교에서의 구원, 즉 해탈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내생을 위해서는 불교를 의지하며, 현생을 위해서는 하급 신들을 믿으며 민간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신들에게 복을 비는 캄보

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도 하급 신들 중에 하나일 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선교사들이 불교와 민간신앙 및 그들의 문화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아직 완벽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 문화와선교연구소는 선교사님들이 치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연구가 쌓이면 곧 모범 답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의 역사 이해를 위한 캄보디아 역사학과의 필수 교재인 David Chandler의 *A History of Cambodia*도 번역했습니다. 이 책은 2010년경에 제가 개인적으로 일부만 번역했었는데, 주변의 권유로 코로나 전후 번역과 감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책이 바깥 빛을 볼 출판사를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이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책이기에, 한국에서의 출판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와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와선교연구소는 2024년 한 해 동안 캄보디아의 불교와 민간신앙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이에 대해 월례 강좌를 통해 선교사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 캄보디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지역과 현장에 더욱 적합한 선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제목

- 주 사역으로 하고 있는 망고나무출판사를 통한 어린이도서 출판과 보급, 독서지도 교육이 모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 독서지도 교육에서 만나는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교육과정에 함께하는 지역의 목회자들이 통로가 되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 캄보디아 문화와선교연구소의 캄보디아 역사책이 한국에서 출판될 수 있도록
- 항상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성찰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의 본분을 다하고, 소명을 다한 것만으로 자족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 두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서

# 4

##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

성경본문

---

2/4~10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136:16)

##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5

월요일

## 예레미야 7:21~8:3

오늘의 찬송 258 샘물과 같은 보혈은

 말씀 속으로

- 21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Go ahead, add your burnt offerings to your other sacrifices and eat the meat yourselves!

- 22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For when I brought your ancestors out of Egypt and spoke to them, I did not just give them commands about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 23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but I gave them this command: Obey me, and I will be your God and you will be my people. Walk in obedience to all I command you,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

24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꺾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But they did not listen or pay attention; instead, they followed the stubborn inclinations of their evil hearts. They went backward and not forward.

25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From the time your ancestors left Egypt until now, day after day, again and again I sent you my servants the prophets.

26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But they did not listen to me or pay attention. They were stiff-necked and did more evil than their ancestors.'

27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When you tell them all this, they will not listen to you; when you call to them, they will not answer.

7:26 너희  
히브리어)그들

- 28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Therefore say to them, "This is the nation that has not obeyed the LORD its God or responded to correction. Truth has perished; it has vanished from their lips.

- 29 너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Cut off your hair and throw it away; take up a lament on the barren heights, for the LORD has rejected and abandoned this generation that is under his wrath.

- 3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The people of Judah have done evil in my eyes, declares the LORD. They have set up their detestable idols in the house that bears my Name and have defiled it.

- 31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렸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They have built the high places of Topheth in the Valley of Ben Hinnom to burn their sons and daughters in the fire - something I did not command, nor did it enter my mind.

---

32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 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So beware,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people will no longer call it Topheth or the Valley of Ben Hinnom, but the Valley of Slaughter, for they will bury the dead in Topheth until there is no more room.

33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Then the carcasses of this people will become food for the birds and the wild animals, and there will be no one to frighten them away.

34 그 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I will bring an end to the sounds of joy and gladness and to the voices of bride and bridegroom in the towns of Judah and the streets of Jerusalem, for the land will become desolate.

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At that time, declares the LORD, the bones of the kings and officials of Judah, the bones of the priests and prophets, and the bones of the people of Jerusalem will be removed from their graves.

7:28 너희  
히브리어)그들

7:28 너희는  
히브리어)이른

- 2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They will be exposed to the sun and the moon and all the stars of the heavens, which they have loved and served and which they have followed and consulted and worshiped. They will not be gathered up or buried, but will be like dung lying on the ground.

- 3 이 악한 민족의 남아 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Wherever I banish them, all the survivors of this evil nation will prefer death to life, declares the LORD Almighty.'

---

---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21~28).**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목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선포를 계속해서 듣지 아니하며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이 전해진 다 한들,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27절).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데에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29~8:3).**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성전에 이방의 가증한 신들을 두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습관 중에 하나인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 엄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자녀를 바치며 이방 신을 섬기던 도벳 사당에 이제는 그들의 뼈가 묻힐 것이고, 그들이 섬긴 무익한 것들 아래에 펼쳐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2절). 그들이 헛된 것들로 즐거워하는 소리는 끊어지고 고요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제사를 올린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은 모두 분토같이 흩날리게 되어 이 세상에 먼지보다 못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은 차라리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3절). 이와 같은 엄중한 경고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 앞에 목이 굳고 교만해지는 것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하는 일입니다. 혹여나 하나님 앞에 등 돌리며 순종하지 않았던 말씀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2.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피조물일 뿐이며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오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5:6~10** <sup>6</sup>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 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 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sup>7</sup>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sup>8</sup>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sup>9</sup>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sup>10</sup>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 6

## 역대하 31:1~10

화요일

오늘의 찬송 436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말씀 속으로

- 1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나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When all this had ended, the Israelites who were there went out to the towns of Judah, smashed the sacred stones and cut down the Asherah poles. They destroyed the high places and the altars throughout Judah and Benjamin and in Ephraim and Manasseh. After they had destroyed all of them, the Israelites returned to their own towns and to their own property.

- 2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와 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Hezekiah assigned the priests and Levites to divisions - each of them according to their duties as priests or Levites - to offer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to minister, to give thanks and to sing praises at the gates of the LORD's dwelling.

- 
- 3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와 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The king contributed from his own possessions for the morning and evening burnt offerings and for the burnt offerings on the Sabbaths, at the New Moons and at the appointed festivals as written in the Law of the LORD.

- 4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와 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He ordered the people living in Jerusalem to give the portion due the priests and Levites so they could devote themselves to the Law of the LORD.

- 5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As soon as the order went out, the Israelites generously gave the firstfruits of their grain, new wine, olive oil and honey and all that the fields produced. They brought a great amount, a tithe of everything.

- 6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The people of Israel and Judah who lived in the towns of Judah also brought a tithe of their herds and flocks and a tithe of the holy things dedicated to the LORD their God, and they piled them in heaps.

7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They began doing this in the third month and finished in the seventh month.

8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When Hezekiah and his officials came and saw the heaps, they praised the LORD and blessed his people Israel.

9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물으니  
Hezekiah asked the priests and Levites about the heaps;

10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and Azariah the chief priest, from the family of Zadok, answered, “Since the people began to bring their contributions to the temple of the LORD, we have had enough to eat and plenty to spare, because the LORD has blessed his people, and this great amount is left over.”

---

---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히스기야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1~4).**

유월절이 큰 기쁨으로 치러진 다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시작한 것은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들을 기드론 시내에 버렸던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도 모든 이방 산당과 제단들을 모조리 없애고 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전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을 재정비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배치하여 그들이 각기 맡은 구역에서 제사를 책임지게 하고, 성전의 찬양을 맡게 했습니다(2절).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가 자기 소유의 가축들을 내어 아침, 저녁으로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였고, 백성들에게도 명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챙겨 그들이 여호와와 일에 온 힘을 다 쏟도록 하였습니다(4절). 이처럼 큰 기쁨의 유월절을 보낸 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의 방향의 중심 기준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2.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5~10).**

이렇게 개혁의 바람이 온 이스라엘을 휩쓸고 있을 때, 여호와와 성전에는 예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7절). 히스기야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산의 첫 열매들과 십일조를 가지고 옵니다. 그 예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정리하고 쌓는 데에 무려 다섯 달 동안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 더미들을 보며 모두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감동에 빠졌을 것입니다. 많은 우여곡절들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셉 때 애굽에서 백성들이 7년 풍년 후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 쌓아 올린 식량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후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전하며(8절), 대제사장 아사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10절).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과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보이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신앙의 길을 걷는 데에는 히스기야의 개혁처럼 신앙을 재정비할 때가 종종 필요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습니까?
2.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잠잠히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6:1~3** <sup>1</sup>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sup>2</sup>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sup>3</sup>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 역대하 31:11~21

오늘의 찬송 455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말씀 속으로

- 11 그 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Hezekiah gave orders to prepare storerooms in the temple of the LORD, and this was done.

- 12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나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Then they faithfully brought in the contributions, tithes and dedicated gifts. Konaniah, a Levite, was the overseer in charge of these things, and his brother Shimei was next in rank.

- 13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합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합과 브나야는 고나나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라가 명령한 바이며

Jehiel, Azaziah, Nahath, Asahel, Jerimoth, Jozabad, Eliel, Ismakiah, Mahath and Benaiah were assistants of Konaniah and Shimei his brother. All these served by appointment of King Hezekiah and Azariah the official in charge of the temple of God.

- 
- 14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 주며

Kore son of Imnah the Levite, keeper of the East Gate, was in charge of the freewill offerings given to God, distributing the contributions made to the LORD and also the consecrated gifts.

- 15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나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라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 주되

Eden, Miniamin, Jeshua, Shemaiah, Amariah and Shekaniah assisted him faithfully in the towns of the priests, distributing to their fellow priests according to their divisions, old and young alike.

- 16 삼 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 주며

In addition, they distributed to the males three years old or more whose names were in the genealogical records - all who would enter the temple of the LORD to perform the daily duties of their various tasks, according to their responsibilities and their divisions.

- 17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 주며 이십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며

And they distributed to the priests enrolled by their families in the genealogical records and likewise to the Levites twenty years old or more, according to their responsibilities and their divisions.

- 18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They included all the little ones, the wives, and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whole community listed in these genealogical records. For they were faithful in consecrating themselves.

- 19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 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As for the priests, the descendants of Aaron, who lived on the farmlands around their towns or in any other towns, men were designated by name to distribute portions to every male among them and to all who were recorded in the genealogies of the Levites.

- 20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This is what Hezekiah did throughout Judah, doing what was good and right and faithful before the LORD his God.

- 21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In everything that he undertook in the service of God's temple and in obedience to the law and the commands, he sought his God and worked wholeheartedly. And so he prospered.

---

---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물의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11~19).**

오 개월 간의 예물은 많은 더미를 쌓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정리하고자 할 때, 히스기야는 역할을 분배하여 이 예물들이 잘 거두어지고 정확하게 나누어지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물과 십일조가 정확하게 보관되기 위하여 고나냐와 아우 시므이에게 책임 및 부책임을 맡기고(12절), 그들의 수하에 열 명의 보조자들을 두었습니다. 또한 고레와 그 수하의 6명의 사람들에게는 예물들을 정확하게 분배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즉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들의 식구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천리로 일이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의 노력과 일을 맡은 이들의 성실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세우려 하였는데, 이는 이후의 세대들도 계속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2.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20~21).**

이 단락에서는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곧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고,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20~21절). 이처럼 하나님을 찾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그를 '다윗'과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왕하 18:3).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의 히스기야의 업적을 돌아보면,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회복시켰으며, 성전의 일들과 예물 및 십일조의 관리를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에 무너진 체계를 세우기 위해 힘썼던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평생 많은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많은 것들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업적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는 평가일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데에는 올바른 제도와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처한 환경과 주변 상황을 잘 고려하며 말씀 위에서 건강한 구조를 갖추어 세상 가운데에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우리가 달려가는 길 끝에 받게 되는 평가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일까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마음을 정돈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6:7~10** <sup>7</sup>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sup>8</sup>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sup>9</sup>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sup>10</sup>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 8

목요일

## 역대하 32:1~15

오늘의 찬송 543 어려운 일 당할 때

 말씀 속으로

- 1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앓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After all that Hezekiah had so faithfully done, Sennacherib king of Assyria came and invaded Judah. He laid siege to the fortified cities, thinking to conquer them for himself.

- 2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When Hezekiah saw that Sennacherib had come and that he intended to wage war against Jerusalem,

- 3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he consulted with his officials and military staff about blocking off the water from the springs outside the city, and they helped him.

- 4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앓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They gathered a large group of people who blocked all the springs and the stream that flowed through the land. "Why should the kings of Assyria come and find plenty of water?" they said.

- 
- 5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Then he worked hard repairing all the broken sections of the wall and building towers on it. He built another wall outside that one and reinforced the terraces of the City of David. He also made large numbers of weapons and shields.

- 6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He appointed military officers over the people and assembled them before him in the square at the city gate and encouraged them with these words:

- 7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or discouraged because of the king of Assyria and the vast army with him, for there is a greater power with us than with him.

- 8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With him is only the arm of flesh, but with us is the LORD our God to help us and to fight our battles.” And the people gained confidence from what Hezekiah the king of Judah said.

- 9 그 후에 앓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Later, when Sennacherib king of Assyria and all his forces were laying siege to Lachish, he sent his officers to Jerusalem with this message for Hezekiah king of Judah and for all the people of Judah who were there:

- 10 앓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This is what Sennacherib king of Assyria says: On what are you basing your confidence, that you remain in Jerusalem under siege?

- 11 히스기야가 너희를 꺾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앓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When Hezekiah says, ‘The LORD our God will save us from the hand of the king of Assyria,’ he is misleading you, to let you die of hunger and thirst.

- 12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Did not Hezekiah himself remove this god’s high places and altars, saying to Judah and Jerusalem, ‘You must worship before one altar and burn sacrifices on it?’

- 
- 13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Do you not know what I and my predecessors have done to all the peoples of the other lands? Were the gods of those nations ever able to deliver their land from my hand?”

- 14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도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Who of all the gods of these nations that my predecessors destroyed has been able to save his people from me? How then can your god deliver you from my hand?

- 15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Now do not let Hezekiah deceive you and mislead you like this. Do not believe him, for no god of any nation or kingdom has been able to deliver his people from my hand or the hand of my predecessors. How much less will your god deliver you from my han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큰 위협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1~8).**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회복하는 데에 힘을 모아 신실하게 통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함락시켰던 앗수르가 남유다에도 쳐들어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삼켰던 앗수르를 보며 유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우선 수로를 막아 앗수르가 물을 얻지 못하게 하고(3~4절), 성벽을 보수하며(5절),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통솔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7절) 앗수르에게는 힘이 있지만 유다에게는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침착하게 방어 체계를 세우며 백성들을 통솔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도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산헤립의 조롱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9~15).**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유다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그때에 산헤립은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유다 무리에게 이와 같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11절) 앗수르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에 행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많은 신들이 그 민족들을 구하지 못하였는데 과연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며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는 말로 유다를 꾀고 있습니다. 산헤립이 전장 가운데에서 위협적인 심리전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피어 하나님과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상대의 진영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의 논리는 앗수르의 전적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주장입니다. 산헤립의 조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한 말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언행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자신의 육신의 팔을 믿는 행위이며(8절),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극한의 상황에 가서야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 있습니까?
2. 세상의 문화와 논리로는 믿음을 갖는 것이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믿음만이 참된 구원의 소망임을 믿고 오늘의 믿음을 구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0:3~5** <sup>3</sup>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sup>4</sup>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sup>5</sup>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 9

—  
금요일

## 역대하 32:16~23

오늘의 찬송 251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말씀 속으로

- 16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Sennacherib's officers spoke further against the LORD God and against his servant Hezekiah,

- 17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The king also wrote letters ridiculing the LORD, the God of Israel, and saying this against him: "Just as the gods of the peoples of the other lands did not rescue their people from my hand, so the god of Hezekiah will not rescue his people from my hand."

- 18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Then they called out in Hebrew to the people of Jerusalem who were on the wall, to terrify them and make them afraid in order to capture the city.

- 19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They spoke about the God of Jerusalem as they did about the gods of the other peoples of the world - the work of human hands.

---

20 이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King Hezekiah and the prophet Isaiah son of Amoz cried out in prayer to heaven about this,

21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앗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앗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And the LORD sent an angel, who annihilated all the fighting men and the commanders and officers in the camp of the Assyrian king. So he withdrew to his own land in disgrace. And when he went into the temple of his god, some of his sons, his own flesh and blood, cut him down with the sword,

22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앗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So the LORD saved Hezekiah and the people of Jerusalem from the hand of Sennacherib king of Assyria and from the hand of all others. He took care of them on every side,

23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 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Many brought offerings to Jerusalem for the LORD and valuable gifts for Hezekiah king of Judah. From then on he was highly regarded by all the nation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산헤립의 비방에서 교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16~19).**

앗수르의 신하들은 산헤립의 조롱과 비방을 반복하였습니다(16절). 이와 같은 조롱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조롱이었습니다. 산헤립의 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롱의 내용은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17절). 그의 조롱에서 특히 가장 치욕스러운 점은 산헤립이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는 점입니다(19절). 특히 신하 랍사게를 보내어 유다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합니다(18절; 왕하 18장). 산헤립이 유다를 신랄하게 모욕하는 장면에서 유월절 날 다윗으로 평가받았던 히스기야를 떠올려 보면, 산헤립은 다윗의 골리앗과 매치가 됩니다(삼상 17장). 여호와와 이름을 모욕하던 골리앗이 다윗의 물뿔물에 한 순간에 무너졌던 것과 같이, 유다와 하나님을 비방한 산헤립에게도 그에 마땅한 결과가 치러질 것이라 예상되는 순간입니다.

**2.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20~23).**

이렇게 치욕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행한 것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20절).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한 천사를 보내어 앗수르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멸하여 버리십니다(왕하 19:35). 그리고 전장에서 남은 자들은 돌아간 본국에서 자식들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와 같이 교만으로 가득 차있던 산헤립과 그의 수하들은 완전한 패망을 겪게 되는데, 세상의 논리로는 결코 예견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정직하였던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은 또다시 세상의 힘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주며, 세상의 논리와 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얻고 모든 나라들 중에 존경을 받게 되었으니(23절), 그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산헤립이 하나님을 세상의 것들과 동등한 위치에 두며 모욕한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2. 히스기야가 부르짖은 기도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0:1~5** <sup>1</sup> 주님,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sup>2</sup>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sup>3</sup>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sup>4</sup>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sup>5</sup>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 10

—  
토요일  
설날

## 예레미야 8:4~17

오늘의 찬송 538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말씀 속으로

- 4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Say to them, “This is what the LORD says: “When people fall down, do they not get up? When someone turns away, do they not return?”

- 5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리감은 어찌함이나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Why then have these people turned away? Why does Jerusalem always turn away? They cling to deceit; they refuse to return.

- 6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I have listened attentively, but they do not say what is right. None of them repent of their wickedness, saying, “What have I done?” Each pursues their own course like a horse charging into battle.

- 
- 7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  
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  
지 못하도다

Even the stork in the sky knows her appointed seasons, and  
the dove, the swift and the thrush observe the time of their  
migration. But my people do not know the requirements of  
the LORD.

- 8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  
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이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How can you say, “We are wise, for we have the law of the  
LORD,” when actually the lying pen of the scribes has handled  
it falsely?”

- 9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  
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The wise will be put to shame; they will be dismayed and  
trapped. Since they have rejected the word of the LORD, what  
kind of wisdom do they have?

- 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  
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  
이라

Therefore I will give their wives to other men and their fields to  
new owners.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all are greedy for  
gain; prophets and priests alike, all practice deceit.

8:8 거짓되게  
법을 거짓되게

- 11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They dress the wound of my people as though it were not serious. "Peace, peace," they say, when there is no peace.

- 12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질 자와 함께 엎드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Are they ashamed of their detestable conduct? No, they have no shame at all; they do not even know how to blush. So they will fall among the fallen; they will be brought down when they are punished, says the LORD.

- 13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I will take away their harvest, declares the LORD. There will be no grapes on the vine. There will be no figs on the tree, and their leaves will wither. What I have given them will be taken from them."

- 14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Why are we sitting here? Gather together! Let us flee to the fortified cities and perish there! For the LORD our God has doomed us to perish and given us poisoned water to drink, because we have sinned against him.

---

15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뿐이로다

We hoped for peace but no good has come, for a time of healing but there is only terror.

16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The snorting of the enemy's horses is heard from Dan; at the neighing of their stallions the whole land trembles. They have come to devour the land and everything in it, the city and all who live there.

17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See, I will send venomous snakes among you, vipers that cannot be charmed, and they will bite you," declares the LORD.

8:13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그들을 진멸할 자를 내  
가 이미 정하였느니라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합니다(4~12).**

환난 날을 당하게 되는 백성들에게 있어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우둔함은 너무나 비참한 상태일 것입니다(7:27). 백성들이 무지와 우둔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4절)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좀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책을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은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덩이에 한 번에 빠져 들어가듯이 단번에 악에 빠져버렸고, 깊은 늪에 있는 것처럼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 섭리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 돌아오지만, 죄인인 사람만큼은 좀처럼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참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말하지만,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달려 있으며 그들에게 참된 지혜와 평강이 머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형벌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13~17).**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열매와 잎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기쁨의 소출이 없을 것이며 포도나무의 열매였던 백성들은 모두 거두어들여질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메마름같이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13절).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들은 여전히 무지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셨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평강과 고침받기는 바라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야 하지만 아직 그들이 무지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도 그들을 향한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난을 주심은 그들로 완전한 패망의 끝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요,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완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돌아오기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에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행불일치는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참된 믿음과 참된 지혜가 있는지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의 입과 행실을 지켜 주시길 잠잠히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5:3~7** <sup>3</sup>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sup>4</sup>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sup>5</sup>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sup>6</sup>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sup>7</sup>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 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 보아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 어머니의 기도

글 김희정 (집사)

안녕하세요. 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희정 집사입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 손경민 작사·작곡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

...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 하나님 열매 주시리 /

2020년 9월쯤 아이들이 2살, 4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찬양을 통해 저와 우리 가정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말씀과 찬양으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내가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먼저 준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라고 ...: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어린 아기였을 때는 성장 때문에 조급한 마음도 있었고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때에 맞게 아이들이 기어 다니게 하시고, 첫걸음이 시작되고, 말을 하고 ...:

## 그 ‘때’는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의 첫걸음이 1년 정도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매일 기도의 손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장 과정은 조금 천천히 가고 있는 저희 첫째 아이 하은이가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몇 달 전부터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기도하며 준비했지만,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먼저 기도했기에 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더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믿기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은이를 지으시고 가장 잘 아시기에, 하은이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 하은이와 동생 하윤이가 지금은 7살, 5살이어서 부모의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곧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이 자라 아이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학교생활과 친구관계 등 중요한 일들 많지만, 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대세를 무분별하게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로 살아가는 아이들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비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역대하 17:3-5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변치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맡음을 지켜 행할 때,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 11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

성경본문

---

2/11~17

주님께서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시편 135:4)

##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말씀 속으로

- 18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  
이 병들었도다

You who are my Comforter in sorrow, my heart is faint within me.

- 19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  
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  
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Listen to the cry of my people from a land far away: "Is the LORD not in Zion? Is her King no longer there?" "Why have they aroused my anger with their images, with their worthless foreign idols?"

- 20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The harvest is past, the summer has ended, and we are not saved."

- 21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Since my people are crushed, I am crushed; I mourn, and horror grips me.

---

22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Is there no balm in Gilead? Is there no physician there? Why then is there no healing for the wound of my people?

1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Oh, that my head were a spring of water and my eyes a fountain of tears! I would weep day and night for the slain of my people.

2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Oh, that I had in the desert a lodging place for travelers, so that I might leave my people and go away from them; for they are all adulterers, a crowd of unfaithful people.

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They make ready their tongue like a bow, to shoot lies; it is not by truth that they triumph in the land. They go from one sin to another; they do not acknowledge me,” declares the LORD.

- 4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Beware of your friends; do not trust anyone in your clan. For every one of them is a deceiver, and every friend a slanderer.

- 5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Friend deceives friend, and no one speaks the truth. They have taught their tongues to lie; they weary themselves with sinning.

- 6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You live in the midst of deception; in their deceit they refuse to acknowledge me,” declares the LORD.

- 7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See, I will refine and test them, for what else can I do because of the sin of my people?

- 8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Their tongue is a deadly arrow; it speaks deceitfully. With their mouths they all speak cordially to their neighbors, but in their hearts they set traps for them.

---

9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Should I not punish them for this?" declares the LORD. "Should I not avenge myself on such a nation as thi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백성들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18~22).**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목이 굳어버린 유다를 향하여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탄식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딸과 같은 유다 백성들의 소리가 먼 땅에서부터 가련히도 들려옵니다. “이제 주님께서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19a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버리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망하게 된 것이라 낙망하며 외칩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탄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유다의 탄식은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입니다(19b절). 그럼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상황만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20절). 백성들의 낙심은 하나님을 탓하고 있으며, 패망의 원인이 자신들로부터 인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그들에게 치료가 임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슬퍼합니다. 딸 백성, 유다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2. 거짓된 백성들을 연단하고자 하십니다(1~9).**

사랑하는 백성들이 진노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그들을 향하여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듣지 아니하며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주야로 울고 맙니다(1절). 그가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자식과 같은 백성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간음과 배반의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2절). 심지어 그들의 악함은 서로 조심하여 형제를 믿지 말아야 할 지경에 다다릅니다(4절). 이렇게 백성들이 서로 속이는 데에 속하였고, 거짓에 길들여져 있으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은 마치 절망의 마지막에 와 있는 듯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이 가련하고 죄에 약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연단하리라 말씀하십니다(7절). 즉, 금속을 녹여 진짜 금속을 가려내듯이 그들이 참된 백성인지 가려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입은 평화를 말하지만 거짓이 속하였고, 마음에는 해가 가득하니,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백성들의 낙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나에게 주신 고난의 순간을 인도하신 의미를 겸손히 간구해 보시다.
2.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연단하며 정금과 같이 나아오게 하십니다. 정결하고 진실된 마음과 굳센 믿음의 은혜를 주시길 사모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3:8~13 <sup>8</sup>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sup>9</sup>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sup>10</sup>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sup>11</sup>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sup>12</sup>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sup>13</sup>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24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In those days Hezekiah became ill and was at the point of death. He prayed to the LORD, who answered him and gave him a miraculous sign.

- 24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  
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But Hezekiah's heart was proud and he did not respond to the kindness shown him; therefore the LORD's wrath was on him and on Judah and Jerusalem.

- 26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Then Hezekiah repented of the pride of his heart, as did the people of Jerusalem; therefore the LORD's wrath did not come on them during the days of Hezekiah.

---

27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Hezekiah had very great wealth and honor, and he made treasuries for his silver and gold and for his precious stones, spices, shields and all kinds of valuables.

28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 떼의 우리를 갖추며

He also made buildings to store the harvest of grain, new wine and olive oil; and he made stalls for various kinds of cattle, and pens for the flocks.

29 양 떼와 많은 소 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 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He built villages and acquired great numbers of flocks and herds, for God had given him very great riches.

30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었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It was Hezekiah who blocked the upper outlet of the Gihon spring and channeled the water down to the west side of the City of David. He succeeded in everything he undertook.

---

---

# 13

—  
화

---

- 31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But when envoys were sent by the rulers of Babylon to ask him about the miraculous sign that had occurred in the land, God left him to test him and to know everything that was in his heart.

- 32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The other events of Hezekiah's reign and his acts of devotion are written in the vision of the prophet Isaiah son of Amoz in the book of the kings of Judah and Israel.

- 33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Hezekiah rested with his ancestors and was buried on the hill where the tombs of David's descendants are. All Judah and the people of Jerusalem honored him when he died. And Manasseh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

---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24~26).**

산해립의 위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위기를 넘긴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시련이 주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24절).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와 말씀’에 따르면 그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왕하 20:1). 그러나 그때에도 히스기야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해의 그림자가 십 도를 물러가게 하는 표적을 보여 주셨습니다(왕하 20:11). 그러나 이어지는 25절에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밝힙니다. 그 교만은 열왕기서에 따르면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동안 베풀었던 하나님의 큰 은혜와 형통함을 단번에 교만의 값싼 것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그에게 진노를 내리고자 하셨으나, 목이 굳었던 조상들과 달리 히스기야가 곧바로 자신의 마음을 뉘우침을 보고 유보하십니다(26절).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징벌은 세대를 건너 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2. 히스기야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입니다(27~33).**

히스기야의 말년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부와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의 모든 부와 영광, 재물과 형통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역대기 사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30절). 히스기야의 마음도 역대기 사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평생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앞선 25절과 같이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교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기 위해 내버려두셨더니(31절), 결국 불합격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회개에 그의 세대 가운데에서는 징벌을 보류하셨습니다(26절). 이처럼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히스기야조차도 마음에 싹이 트이는 교만함을 끝내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끝까지 신실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평가된 것은 그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29:2).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될 수 있도록 예민한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2. 믿음의 길을 완전히 달려간 끝에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듣기 원하니까? 인생 끝까지 은혜의 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에 접붙인바 되기를 사모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1:1~5** <sup>1</sup>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sup>2</sup>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sup>3</sup>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sup>4</sup> 그들이 몰래 쳐 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sup>5</sup>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인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1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 동안 다스리며

Manasseh was twelv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fifty-five years.

- 2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following the detestable practices of the nations the LORD had driven out before the Israelites.

- 3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He rebuilt the high places his father Hezekiah had demolished; he also erected altars to the Baals and made Asherah poles. He bowed down to all the starry hosts and worshiped them.

- 4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He built altars in the temple of the LORD, of which the LORD had said, "My Name will remain in Jerusalem forever."

---

5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In both courts of the temple of the LORD, he built altars to all the starry hosts.

6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 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화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He sacrificed his children in the fire in the Valley of Ben Hinnom, practiced divination and witchcraft, sought omens, and consulted mediums and spiritists. He did much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rousing his anger.

7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He took the image he had made and put it in God's temple, of which God had said to David and to his son Solomon, "In this temple and in Jerusalem, which I have chosen out of all the tribes of Israel, I will put my Name forever.

8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I will not again make the feet of the Israelites leave the land I assigned to your ancestors, if only they will be careful to do everything I commanded them concerning all the laws, decrees and regulations given through Moses."

- 9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꺾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But Manasseh led Judah and the people of Jerusalem astray, so that they did more evil than the nations the LORD had destroyed before the Israelites.

- 10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The LORD spoke to Manasseh and his people, but they paid no attention.

- 11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So the LORD brought against them the army commanders of the king of Assyria, who took Manasseh prisoner, put a hook in his nose, bound him with bronze shackles and took him to Babylon.

- 12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In his distress he sought the favor of the LORD his God and humbled himself greatly before the God of his ancestors.

---

13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And when he prayed to him, the LORD was moved by his entreaty and listened to his plea; so he brought him back to Jerusalem and to his kingdom. Then Manasseh knew that the LORD is Go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므낫세의 악이 유다를 뒤덮고 있습니다(1~9).**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다음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는 12세에 왕이 되어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훌륭한 신앙의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훌륭한 통치를 할 것이라 기대가 되지만 애석하게도 므낫세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큰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9절).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이방의 신당들을 도로 세우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6절). 그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지도자의 선택에 따라 한 나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회복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단락입니다.

**2. 므낫세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10~13).**

악을 행하며 마음이 우둔한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지만(10절), 그의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사용하셔서 그를 치시고 쇠사슬에 결박당하게 하십니다(11절). 학자들에 의하면 므낫세가 앗수르에게 끌려간 것은 그의 통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의 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악한 일을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무렵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온 것입니다. 악이 일상이었던 그에게도 진실된 회개가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를 다시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13절). 이렇게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모든 과정들을 옆에서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말년에 가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은혜 중의 은혜이며,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큰 은혜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명의 지도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2. 므낫세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으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전도에 힘쓰기를 다짐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6:3~6** <sup>3</sup>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sup>4</sup>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sup>5</sup>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sup>6</sup>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 15

목요일

## 역대하 33:14~25

오늘의 찬송 251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말씀 속으로

- 14 그 후에 다윗 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Afterward he rebuilt the outer wall of the City of David, west of the Gihon spring in the valley, as far as the entrance of the Fish Gate and encircling the hill of Ophel; he also made it much higher. He stationed military commanders in all the fortified cities in Judah.

- 15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He got rid of the foreign gods and removed the image from the temple of the LORD, as well as all the altars he had built on the temple hill and in Jerusalem; and he threw them out of the city.

- 16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Then he restored the altar of the LORD and sacrificed fellowship offerings and thank offerings on it, and told Judah to serve the LORD, the God of Israel.

---

17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The people, however, continued to sacrifice at the high places, but only to the LORD their God.

18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The other events of Manasseh's reign, including his prayer to his God and the words the seers spoke to him in the name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are written in the annals of the kings of Israel.

19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새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His prayer and how God was moved by his entreaty, as well as all his sins and unfaithfulness, and the sites where he built high places and set up Asherah poles and idols before he humbled himself - all these are written in the records of the seers.

20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우매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Manasseh rested with his ancestors and was buried in his palace. And Amon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 21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 년 동안 다스리며

Amon was twenty-two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two years.

- 22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 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s his father Manasseh had done. Amon worshiped and offered sacrifices to all the idols Manasseh had made.

- 23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But unlike his father Manasseh, he did not humble himself before the LORD; Amon increased his guilt.

- 24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Amon's officials conspired against him and assassinated him in his palace.

- 25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Then the people of the land killed all who had plotted against King Amon, and they made Josiah his son king in his place.

---

---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므낫세의 말년에 회복을 위해 힘씁니다(14~20).**

므낫세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환난을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삶은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그는 자신이 쌓았던 이방 신들과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였습니다(15절).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자 유다 백성들에게 명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지시하였습니다(16절). 그러나 말년에서의 돌이킴에는 완전한 회복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깨끗이 제거하지는 못한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또한 그의 행적들이 적힌 기록에는 그가 세웠던 우상들도 기록에 남게 됩니다. 회복을 위해 마지막에 힘썼던 그것지만 마지막에 우상들과 같이 기억된 것은 그간 그가 얼마나 심한 악을 행해 왔는지를 추측하게끔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말년에는 회개함으로 겸손함을 되찾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아몬의 악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21~25).**

므낫세 이후 그의 아들인 아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몬은 그의 아버지의 행보를 다 봤을 것임에도 아버지의 말년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므낫세가 미처 다 제거하지 못하고 남기고 간 우상들에게 다시 제사하였고(22절), 심지어 종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므낫세와 달리 끝까지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23절). 므낫세의 악한 행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것을 넘어서, 끝까지 교만했던 아몬의 죄는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게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며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통치를 마치게 됩니다. 아몬은 회개로 자신의 말년을 보냈던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록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듯이 아몬에게도 하나님의 기다림과 부르심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몬은 ‘더욱’ 범죄하였으며 끝내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짧은 통치 기간이었지만 그의 행실은 우리에게 큰 반면교사의 모습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하늘에서는 의인 아훤아훤 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눅 15:7). 모든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2.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것은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3** <sup>1</sup>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sup>2</sup>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sup>3</sup>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 16

—  
금요일

## 역대하 34:1~13

오늘의 찬송 38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말씀 속으로

- 1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팔 세라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 동안 다스리며

Josiah was eight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thirty-one years.

- 2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nd followed the ways of his father David, not turning aside to the right or to the left.

- 3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던 지 팔 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십이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In the eighth year of his reign, while he was still young, he began to seek the God of his father David. In his twelfth year he began to purge Judah and Jerusalem of high places, Asherah poles and idols.

- 
- 4 무리가 왕 앞에서 비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찢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뺏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 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Under his direction the altars of the Baals were torn down; he cut to pieces the incense altars that were above them, and smashed the Asherah poles and the idols. These he broke to pieces and scattered over the graves of those who had sacrificed to them,

- 5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대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He burned the bones of the priests on their altars, and so he purged Judah and Jerusalem,

- 6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In the towns of Manasseh, Ephraim and Simeon, as far as Naphtali, and in the ruins around them,

- 7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뺏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찢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he tore down the altars and the Asherah poles and crushed the idols to powder and cut to pieces all the incense altars throughout Israel. Then he went back to Jerusalem,

- 8 요시야가 왕위에 있는 지 열여덟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냈지라

In the eighteenth year of Josiah's reign, to purify the land and the temple, he sent Shaphan son of Azaliah and Maaseiah the ruler of the city, with Joah son of Joahaz, the recorder, to repair the temple of the LORD his God.

- 9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They went to Hilkiah the high priest and gave him the money that had been brought into the temple of God, which the Levites who were the gatekeepers had collected from the people of Manasseh, Ephraim and the entire remnant of Israel and from all the people of Judah and Benjamin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 10 그 돈을 여호와와 그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와 그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Then they entrusted it to the men appointed to supervise the work on the LORD's temple. These men paid the workers who repaired and restored the temple.

- 
- 11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They also gave money to the carpenters and builders to purchase dressed stone, and timber for joists and beams for the buildings that the kings of Judah had allowed to fall into ruin.

- 12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라와 무솔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The workers labored faithfully. Over them to direct them were Jahath and Obadiah, Levites descended from Merari, and Zechariah and Meshullam, descended from Kohath. The Levites - all who were skilled in playing musical instruments -

- 13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had charge of the laborers and supervised all the workers from job to job. Some of the Levites were secretaries, scribes and gatekeeper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으며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1~7).**

던져진 동전의 양면이 계속해서 뒤바뀌듯 악한 행실로 마무리를 진 아몬의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인정받은 요시야가 다음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정결하기 위해 힘쓴 왕입니다(3절). 히스기야도 그의 개혁에 있어서 다윗과 같다고 불리는 것과 같이 요시야도 다윗을 떠올리게 합니다. 얼마나 정직하였던 것인지 그의 기록의 시작점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며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2절). 그는 우상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5절). 또한 그의 정결 작업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쪽 지역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개혁은 히스기야가 우상을 가장 먼저 해결하였던 것과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악한 일들을 제거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2. 선한 왕을 통하여 성전이 복구되고 있습니다(8~13).**

요시야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정결작업을 마친 후에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11절). 이 작업을 위하여 그는 많은 인원들을 세우는데, 우선은 제사장에게 성전 보수를 추진하기 위한 세 사람을 보냅니다(8절). 그 이후에 작업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감독자들과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 등을 세웁니다(13절). 왕이 먼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였으며 성실하였기 때문일까요? 일하는 자들도 모두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데에 성실하게 임합니다(12절). 특히 11절에서는 그동안 우상숭배로 훼손되어 있던 여호와의 성전이 차근차근 수리되어 가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돌과 나무 하나하나마다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성전을 수리해 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르나세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치우되지 않았던 우상의 더러운 것들이 요시야를 통하여 하나씩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왕의 올바른 지도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시작한 것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마음과 삶의 자리는 얼마나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2. 요시야를 통한 성전의 복구 작업이 체계적이고 정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는 어느 정도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5:4~7** <sup>4</sup>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sup>5</sup>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sup>6</sup>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sup>7</sup>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10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I will weep and wail for the mountains and take up a lament concerning the wilderness grasslands. They are desolate and untraveled, and the lowing of cattle is not heard. The birds have all fled and the animals are gone.

- 11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I will make Jerusalem a heap of ruins, a haunt of jackals; and I will lay waste the towns of Judah so no one can live there."

- 12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 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Who is wise enough to understand this? Who has been instructed by the LORD and can explain it? Why has the land been ruined and laid waste like a desert that no one can cross?

- 
- 13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The LORD said, "It is because they have forsaken my law, which I set before them; they have not obeyed me or followed my law.

- 14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Instead, they have followed the stubbornness of their hearts; they have followed the Baals, as their ancestors taught them."

- 15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See, I will make this people eat bitter food and drink poisoned water.

- 16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 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I will scatter them among nations that neither they nor their ancestors have known, and I will pursue them with the sword until I have made an end of them."

- 17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Consider now! Call for the wailing women to come; send for the most skillful of them,

- 18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Let them come quickly and wail over us till our eyes overflow with tears and water streams from our eyelids.

- 19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라 함이로다

The sound of wailing is heard from Zion: 'How ruined we are! How great is our shame! We must leave our land because our houses are in ruins.'

- 20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Now, you women, hear the word of the LORD; open your ears to the words of his mouth. Teach your daughters how to wail; teach one another a lament.

- 21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Death has climbed in through our windows and has entered our fortresses; it has removed the children from the streets and the young men from the public squares.

- 22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 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Say, "This is what the LORD declares: " 'Dead bodies will lie like dung on the open field, like cut grain behind the reaper, with no one to gather them.'

- 
- 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Let not the wise boast of their wisdom or the strong boast of their strength or the rich boast of their riches,

-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but let the one who boasts boast about this: that they have the understanding to know me, that I am the LORD, who exercises kindness, justice and righteousness on earth, for in these I delight,” declares the LORD.

- 25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I will punish all who are circumcised only in the flesh -

- 26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쥍을 깬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Egypt, Judah, Edom, Ammon, Moab and all who live in the wilderness in distant places. For all these nations are really uncircumcised, and even the whole house of Israel is uncircumcised in heart.”

9:25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한 자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울려집니다(10~16).**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슬픈 노래를 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던 곳이 이제는 황폐한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던 곳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싸움의 소리마저 그치고 완전한 소망이 끊기며 더 이상 생명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땅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깨달을 만한 지혜자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고 외치며(8:11),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였습니다(8:8). 그러나 그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이는 헛요, 거짓된 지혜입니다(3절). 그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자신의 죄를 가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아는 것이며,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며, 우상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13-14절).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지혜가 남아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망과 위기의 경고를 주십니다.

**2. 참으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17~26).**

유다 백성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가 불려집니다. 예레미야는 함께 울어줄 여인들을 불러 멸망할 백성 유다를 위하여 한없이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백성의 멸망을 앞두고 그들의 죽음을 위한 눈물이 흘러지고 구슬픈 노랫가락이 흘러나옵니다. 시온에서도 통곡이 나오니, 그들이 “어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하였으며, 이토록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19절)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삶과 생명을 이어 갔던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이며, 백성들의 전면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21~22절).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지혜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24절) 그리고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심을 깨달은 것만을 자랑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참 지혜의 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 받은 자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여 주십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25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함과 낮은 마음으로 나가는 심령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오늘 하루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사모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5:8~12** <sup>8</sup>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sup>9</sup>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sup>10</sup>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sup>11</sup>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sup>12</sup>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 삼위일체 하나님

글 김경래 (부목사)

성경통독을 작성하고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면 곧 만나게 되는, 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 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3장 22절에도 나오며, 창세기 11장 7절에도 등장한다. '우리'라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복수의 존재라는 것인가? 하지만 기독교는 다신교가 아닌 유일신교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에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만약 창세기를 읽는 도중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와 궁금증을 자아낸 경험이 아직 없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통독 일정에 쫓겨 너무 급하게 읽었거나, 아니면 창세기 1장을 읽기도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학습이 끝나고 그 교리가 마음에 새겨진 상태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아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읽는다면 이 문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אֱלֹהִים)이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엘로아흐(אֱלֹהִים)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엘로힘(אֱלֹהִים)에 따라오는 동사, '창조하시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בָּרָא)는 단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복수 형태의 주어에 단수 형태의 동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사이비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성별이 두 개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낮추어 신인 동형설(神人同形設)적으로 말하는 저급한 망상일 뿐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관측 가능한 크기만 해도 약 930억 광년이라 추정되는 이 거대한 우주 어디에나 편재하시며 다스리시는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께 적합한 설명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의 전통은 이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해석해 왔다. 비록 창세기 기록 당시의 유대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읽는다면, 위에서 언급한 의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삼위일체로 계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온전한 하나님으로 구별되는 세 위격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시며 분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존재 방식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가 아니라) 창세기<sup>1</sup> 전부터 삼위일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설명하기 어려웠겠지만,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시며 삼위일체 안의 참사랑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자가 성부 안에,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는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며 한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이유 또한 사랑일 것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성경책의 첫 장을 넘기면서부터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 18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

성경본문

---

2/18~24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시편 106:5)

##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9

월요일

## 예레미야 10:1~16

오늘의 찬송 71 예부터 도움 되시고

 말씀 속으로

- 1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Hear what the LORD says to you, people of Israel.

- 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Do not learn the ways of the nations or be terrified by signs in the heavens, though the nations are terrified by them.

- 3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For the practices of the peoples are worthless; they cut a tree out of the forest, and a craftsman shapes it with his chisel.

- 4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They adorn it with silver and gold; they fasten it with hammer and nails so it will not totter.

- 
- 5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나지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Like a scarecrow in a cucumber field, their idols cannot speak; they must be carried because they cannot walk. Do not fear them; they can do no harm nor can they do any good.”

- 6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No one is like you, LORD; you are great, and your name is mighty in power.

- 7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 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Who should not fear you, King of the nations? This is your due. Among all the wise leaders of the nations and in all their kingdoms, there is no one like you.

- 8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 뿐이라

They are all senseless and foolish; they are taught by worthless wooden idols.

- 9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Hammered silver is brought from Tarshish and gold from Uphaz. What the craftsman and goldsmith have made is then dressed in blue and purple - all made by skilled workers.

---

# 19

—  
월

---

- 10 오직 여호와와는 참 하나님이지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지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But the LORD is the true God; he is the living God, the eternal King. When he is angry, the earth trembles; the nations cannot endure his wrath.

- 11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Tell them this: ‘These gods, who did not m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will perish from the earth and from under the heavens.’”

- 12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But God made the earth by his power; he founded the world by his wisdom and stretched out the heavens by his understanding.

- 13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When he thunders, the waters in the heavens roar; he makes clouds rise from the ends of the earth. He sends lightning with the rain and brings out the wind from his storehouses.

- 
- 14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Everyone is senseless and without knowledge; every goldsmith is shamed by his idols. The images he makes are a fraud; they have no breath in them.

- 15 그것들은 헛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They are worthless, the objects of mockery; when their judgment comes, they will perish.

- 16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He who is the Portion of Jacob is not like these, for he is the Maker of all things, including Israel, the people of his inheritance - the LORD Almighty is his name.

---

10:15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조롱함을 받을 것인즉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1~11).**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결같이 바라셨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진노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이방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이방 사람들같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 하며,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5절). 이방의 우상들은 그저 이방의 허황된 풍속일 뿐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늘의 해와 달과 같은 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며(8:2), 이방의 신상들은 사람에게 어떤 복도 재앙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공예품일 따름입니다(3절). 이방인들의 가르침은 우상의 나무와 같을 뿐이며(8절), 은장색의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9절).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그 이외에 계신 이가 없습니다.

**2.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12~16).**

예레미야가 권능으로 이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며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12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리와 자연의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13절). 그러나 오직 사람만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헛된 것들을 섬깁니다. 이렇게 사람은 우둔하고 미련하여 스스로 수치스러운 일들을 만들어 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일삼습니다(14절). 우상들 가운데 허황되지 않은 것들이 없으며 하나님의 징벌의 때에는 모두 멸망을 맞이할 것입니다(15절). 그러나 그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야곱의 분깃,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 허황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며, 비록 지금은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됨을 회복할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온 만물의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노랫가락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2.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등돌리기 쉬운 죄인의 습성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은혜의 삶을 사모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7:6~9** <sup>6</sup>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sup>7</sup>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sup>8</sup> 하나님은 못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sup>9</sup>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14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아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While they were bringing out the money that had been taken into the temple of the LORD, Hilkiyah the priest found the Book of the Law of the LORD that had been given through Moses.

- 15 힐기아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아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Hilkiyah said to Shaphan the secretary, "I have found the Book of the Law in the temple of the LORD." He gave it to Shaphan.

- 16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Then Shaphan took the book to the king and reported to him: "Your officials are doing everything that has been committed to them.

- 17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쏘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They have paid out the money that was in the temple of the LORD and have entrusted it to the supervisors and workers."

- 
- 18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Then Shaphan the secretary informed the king, "Hilkiah the priest has given me a book," And Shaphan read from it in the presence of the king.

- 19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When the king heard the words of the Law, he tore his robes,

- 20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He gave these orders to Hilkiah, Ahikam son of Shaphan, Abdon son of Micah, Shaphan the secretary and Asaiah the king's attendant:

- 21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Go and inquire of the LORD for me and for the remnant in Israel and Judah about what is written in this book that has been found. Great is the LORD's anger that is poured out on us because those who have gone before us have not kept the word of the LORD; they have not acted in accordance with all that is written in this book."

- 22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합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Hilkiah and those the king had sent with him went to speak to the prophet Huldah, who was the wife of Shallum son of Tokhath, the son of Hasrah, keeper of the wardrobe. She lived in Jerusalem, in the New Quarter.

- 23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She said to them,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Tell the man who sent you to me,

- 2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 주대로 하리니

"This is what the LORD says: I am going to bring disaster on this place and its people - all the curses written in the book that has been read in the presence of the king of Judah.

- 25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 곳에 쏟으매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Because they have forsaken me and burned incense to other gods and aroused my anger by all that their hands have made, my anger will be poured out on this place and will not be quenched.'

---

26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Tell the king of Judah, who sent you to inquire of the LORD,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concerning the words you heard:

27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 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Because your heart was responsive and you humbled yourself before God when you heard what he spoke against this place and its people, and because you humbled yourself before me and tore your robes and wept in my presence, I have heard you, declares the LORD.

28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Now I will gather you to your ancestors, and you will be buried in peace. Your eyes will not see all the disaster I am going to bring on this place and on those who live here.' So they took her answer back to the king.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율법책이 발견됩니다(14~21).**

요시야의 성전 보수 작업 중에 제사장 힐기야를 통하여 그동안 잊혀진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율법책이 잊혀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숨겨 두었다가 잊혀졌거나 혹은 악한 왕의 집권 때에 숨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잊혀져 있던 율법책이 발견되고서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에게 율법책의 발견을 알리며 그것을 읽어 줍니다. 그러자 요시야는 애통해 하며 자기의 옷을 찢고 말합니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여쭙어 보도록 하시오, …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21절) 요시야는 단번에 그 율법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요시야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사건은 곧 요시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요시야는 즉각 반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2.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통곡을 보십니다(22~28).**

이에 요시야가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 가서 이 율법책에 대하여 물으니 그녀가 전하는 말은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한 것만 판단하지 않으시고 요시야의 통곡을 보셨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낮고 연약한 마음으로 나아왔으며, 겸손으로 통곡의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27절). 그의 기도가 겸손하다고 평가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대까지는 진노의 벌을 유보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28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의 벌이 완전히 사하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시며 평안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은 곧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아직 죄 속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근래에 깊이 깨닫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던지 되돌아보십시오.
2.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차마 다 하지 못하는 간구를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103~106** <sup>103</sup>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합니다. <sup>104</sup>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sup>105</sup>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sup>106</sup>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 역대하 34:29~35:6

오늘의 찬송 195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 말씀 속으로

- 29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Then the king called together all the elders of Judah and Jerusalem,

- 30 여호와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 주고

He went up to the temple of the LORD with the people of Judah,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the priests and the Levites - all the people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He read in their hearing all the words of the Book of the Covenant, which had been found in the temple of the LORD.

- 31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The king stood by his pillar and renewed the covenant in the presence of the LORD - to follow the LORD and keep his commands, statutes and decrees with all his heart and all his soul, and to obey the words of the covenant written in this book.

- 
- 32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Then he had everyone in Jerusalem and Benjamin pledge themselves to it; the people of Jerusalem did this in accordance with the covenant of God, the God of their ancestors.

- 33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Josiah removed all the detestable idols from all the territory belonging to the Israelites, and he had all who were present in Israel serve the LORD their God. As long as he lived, they did not fail to follow the LORD, the God of their ancestors.

- 1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 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Josiah celebrated the Passover to the LORD in Jerusalem, and the Passover lamb was slaughtered on the fourteenth day of the first month.

- 2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 의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He appointed the priests to their duties and encouraged them in the service of the LORD's temple.

- 3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He said to the Levites, who instructed all Israel and who had been consecrated to the LORD: "Put the sacred ark in the temple that Solomon son of David king of Israel built. It is not to be carried about on your shoulders. Now serve the LORD your God and his people Israel.

- 4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Prepare yourselves by families in your divisions,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written by David king of Israel and by his son Solomon.

- 5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Stand in the holy place with a group of Levites for each subdivision of the families of your fellow Israelites, the lay people.

- 6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Slaughter the Passover lambs, consecrate yourselves and prepare the lambs for your fellow Israelites, doing what the LORD commanded through Moses."

---

---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요시아와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기로 다짐합니다(29~33).**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선지자 홀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요시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의 세대에는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자신의 세대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는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 그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합니다(30절).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주님 앞에서 재차 언약을 맺습니다(31절). 이 언약은 이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떠오르게 합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신 6:5). 이 언약은 곧 '신앙의 순종'입니다. 요시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품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요시아의 유월절이 철저히 준비되고 있습니다(1~6).**

요시아의 증조부인 히스기야 이후로 다시 한번 유월절이 회복됩니다. 히스기야 때에는 유월절은 둘째 달이 되어서야 지킬 수 있었는데, 요시아 때에 와서 본래 대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요시아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제사장들이 각 직분을 맡고 수행하는 것과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주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유월절을 제도화하고 정비하는 요시아의 마음이자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이 보수된 이후 요시아는 궤가 항상 성전에 두어 있게 하였고, 레위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글과 모세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준비하게 하였습니다(4, 6절). 그리고 어린양은 오직 레위인들이 맡아서 잡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신앙의 진수는 다름 아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2.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와 지역 공동체와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3:4~6** <sup>4</sup>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sup>5</sup>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sup>6</sup>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7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이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 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삼만 마리와 수소 삼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Josiah provided for all the lay people who were there a total of thirty thousand lambs and goats for the Passover offerings, and also three thousand cattle - all from the king's own possessions.

- 8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라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이천육백 마리와 수소 삼백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His officials also contributed voluntarily to the people and the priests and Levites. Hilkiyah, Zechariah and Jehiel, the officials in charge of God's temple, gave the priests twenty-six hundred Passover offerings and three hundred cattle.

- 9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오천 마리와 수소 오백 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Also Konaniah along with Shemaiah and Nethanel, his brothers, and Hashabiah, Jeiel and Jozabad, the leaders of the Levites, provided five thousand Passover offerings and five hundred head of cattle for the Levites.

- 
- 10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The service was arranged and the priests stood in their places with the Levites in their divisions as the king had ordered.

- 11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The Passover lambs were slaughtered, and the priests splashed against the altar the blood handed to them, while the Levites skinned the animals.

- 12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They set aside the burnt offerings to give them to the subdivisions of the families of the people to offer to the LORD,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Moses. They did the same with the cattle.

- 13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They roasted the Passover animals over the fire as prescribed, and boiled the holy offerings in pots, caldrons and pans and served them quickly to all the people.

- 14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다

After this, they made preparations for themselves and for the priests, because the priests, the descendants of Aaron, were sacrificing the burnt offerings and the fat portions until nightfall. So the Levites made preparations for themselves and for the Aaronic priests.

- 15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다

The musicians, the descendants of Asaph, were in the places prescribed by David, Asaph, Heman and Jeduthun the king's seer. The gatekeepers at each gate did not need to leave their posts, because their fellow Levites made the preparations for them.

---

---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제물들이 모여집니다(7~9).**

말씀을 따라 각 직무를 맡은 이들의 준비가 이루어지고서, 요시아는 자기의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소를 내어 줍니다. 그러자 요시아를 시작으로 지도자들도 자신의 재산 중에서 제물을 기꺼이 제공하여 유월절 준비가 풍부해졌습니다. 왕이 모습이 솔선수범이 되어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준비하는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준비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즐거이’ 자신의 희생을 드렸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8절). 이렇게 그들이 기쁘게 자원하여 드린 제물들은 기록에 따르면 총 어린 양과 염소가 37,600마리, 수소가 3,800마리가 모입니다. 이렇게 풍성히 모인 제물은 양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를 떠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모인 데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고(6절) 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를 막론하고 은혜로운 유월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한마음으로 준비한 유월절을 맞이합니다(10~15).**

요시아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헌물들이 모인 유월절의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양과 백성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 기초부터 준공까지 모든 것을 결점 없이 완비하였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8:16). 그리고 유월절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급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7:14). 백성들은 그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소도 그와 같이 한 후에 무교절의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모든 일들이 각자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실히 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음식은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 백성들을 위하여 모자람 없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유월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며 본래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어 바라신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기쁨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2.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예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회중의 예배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에 서로를 위한 살롬의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6:10~13** <sup>10</sup>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sup>11</sup>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sup>12</sup>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sup>13</sup>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스올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16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와 제단에 드렸으며

So at that time the entire service of the LORD was carried out for the celebration of the Passover and the offering of burnt offerings on the altar of the LORD, as King Josiah had ordered.

- 17 그 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칠 일 동안 지켰으니

The Israelites who were present celebrated the Passover at that time and observed the Festival of Unleavened Bread for seven days.

- 18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The Passover had not been observed like this in Israel since the days of the prophet Samuel; and none of the kings of Israel had ever celebrated such a Passover as did Josiah, with the priests, the Levites and all Judah and Israel who were there with the people of Jerusalem.

---

19 요시야가 왕위에 있는 지 열여덟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This Passover was celebrated in the eighteenth year of Josiah's reign.

20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테 강 거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After all this, when Josiah had set the temple in order, Necho king of Egypt went up to fight at Carchemish on the Euphrates, and Josiah marched out to meet him in battle.

21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But Necho sent messengers to him, saying, "What quarrel is there, king of Judah, between you and me? It is not you I am attacking at this time, but the house with which I am at war. God has told me to hurry; so stop opposing God, who is with me, or he will destroy you."

22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므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Josiah, however, would not turn away from him, but disguised himself to engage him in battle. He would not listen to what Necho had said at God's command but went to fight him on the plain of Megiddo.

- 23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Archers shot King Josiah, and he told his officers, "Take me away; I am badly wounded."

- 24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피하고

So they took him out of his chariot, put him in his other chariot and brought him to Jerusalem, where he died. He was buried in the tombs of his ancestors, and all Judah and Jerusalem mourned for him.

- 25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에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Jeremiah composed laments for Josiah, and to this day all the male and female singers commemorate Josiah in the laments. These became a tradition in Israel and are written in the Laments.

- 26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The other events of Josiah's reign and his acts of devotion in accordance with what is written in the Law of the LORD -

---

27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all the events, from beginning to end, are written in the book of the kings of Israel and Judah,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이후로 이와 같은 유월절이 없었습니다(16~19).**

요시야의 성전 보수와 율법책의 발견, 그리고 다함께 힘을 모은 준비로 성대히 이루어진 유월절을 되돌아본다면 요시야가 그의 기록의 시작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2절)라고 평가받을 만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의 바른 신앙과 회개는 백성들도 함께 여호와 앞에 겸손한 마음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유월절은 은혜와 성대한 제물과 모두의 헌신으로 드러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유월절을 향하여 역대기 사기는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18절)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유월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됨을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본래 이스라엘이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며, 이스라엘을 부르신 뜻의 본래 목적인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백성이 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요시야가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20~27).**

이 일 후에 앗수르의 지원을 가기 위해 올라오는 애굽을 요시야가 막는 사건이 일어납니다(20절). 유다에게 있어서 앗수르 지원을 막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지만, 느고스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21절). 그러나 요시야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화살에 맞게 됩니다. 곧 죽을 상황에서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돌아올 때 그는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결국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숨을 거둘 수 있었고, 홀다의 예언대로 조상의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34:28).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 모든 통치 세월 동안 힘을 다했던 요시야의 죽음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의 시대는 성대한 유월절의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앞으로 이어지는 세대들에게 이전 시대에 대한 향수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세상 풍파에 휩쓸려 가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아쉬움과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를 향한 애가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금을 울리었을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요시야의 지도 하에 성대한 유월절이 이루어지며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어떤 것인지 잠잠히 생각해 봅시다.
2. 요시야의 죽음이 많은 의미를 남겼듯이,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에도 큰 가르침을 남겨 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려받은 신앙에 대한 감사와 후대를 위한 다짐을 떠올려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6:1~5** <sup>1</sup>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sup>2</sup>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sup>3</sup>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sup>4</sup> 주님,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sup>5</sup>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17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네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Gather up your belongings to leave the land, you who live under siege.

## 1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For this is what the LORD says: "At this time I will hurl out those who live in this land; I will bring distress on them so that they may be captured."

## 19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Woe to me because of my injury! My wound is incurable! Yet I said to myself, "This is my sickness, and I must endure it."

## 20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My tent is destroyed; all its ropes are snapped. My children are gone from me and are no more; no one is left now to pitch my tent or to set up my shelter.

---

21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The shepherds are senseless and do not inquire of the LORD; so they do not prosper and all their flock is scattered.

22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Listen! The report is coming - a great commotion from the land of the north! It will make the towns of Judah desolate, a haunt of jackals.

23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LORD, I know that people's lives are not their own; it is not for them to direct their steps.

24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Discipline me, LORD, but only in due measure - not in your anger, or you will reduce me to nothing.

25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니이다 하니라

Pour out your wrath on the nations that do not acknowledge you, on the peoples who do not call on your name. For they have devoured Jacob; they have devoured him completely and destroyed his homeland.

10:21 형통하지 못하며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며

10:25 거처  
목장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게 되었습니다(17~18).**

17절의 ‘너’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2인칭 단수 여성을 지칭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으로, 곧 유다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이 지금 ‘에워싸인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에워싸여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이 적군들에게 에워싸여 그 땅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유다가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이 땅’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와의 성전이라’(7:4) 부르며 신뢰하였던 그 성전(7:14)을 떠나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18절). 하나님을 향해 목을 굳게 하며 말씀에 대답하지 아니하며 속임과 거짓으로 점철된 백성들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내어 던지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의 이유는 다름 아닌 18절 하반 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적군에게 억눌린바 된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인도가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2.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19~25).**

유다는 내쫓겨진 곳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참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상을 겪게 된 유다. 그들의 장막이 무너지고, 자녀들마저도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20절). 이제는 지킬 사람도, 회복시킬 사람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고아와 같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거짓 목자에 의해 양 무리가 모두 흩어짐을 당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주어지는 것은 북방에서부터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뿐입니다. 그 북방의 세력들은 유다의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황폐케 할 것입니다(22절). 그때에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다시 드러질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기도는 예레미야의 기도로도 볼 수 있지만, 원어의 해석상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기도로도 해석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완전히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의 용서를 구하며, 선택된 민족, 야곱의 분깃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주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2.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비록 고난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과 멀어짐보다 나음을 기억하며, 삶에 간섭해 주시는 은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64~68** <sup>64</sup>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sup>65</sup>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sup>66</sup>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sup>67</sup>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sup>68</sup>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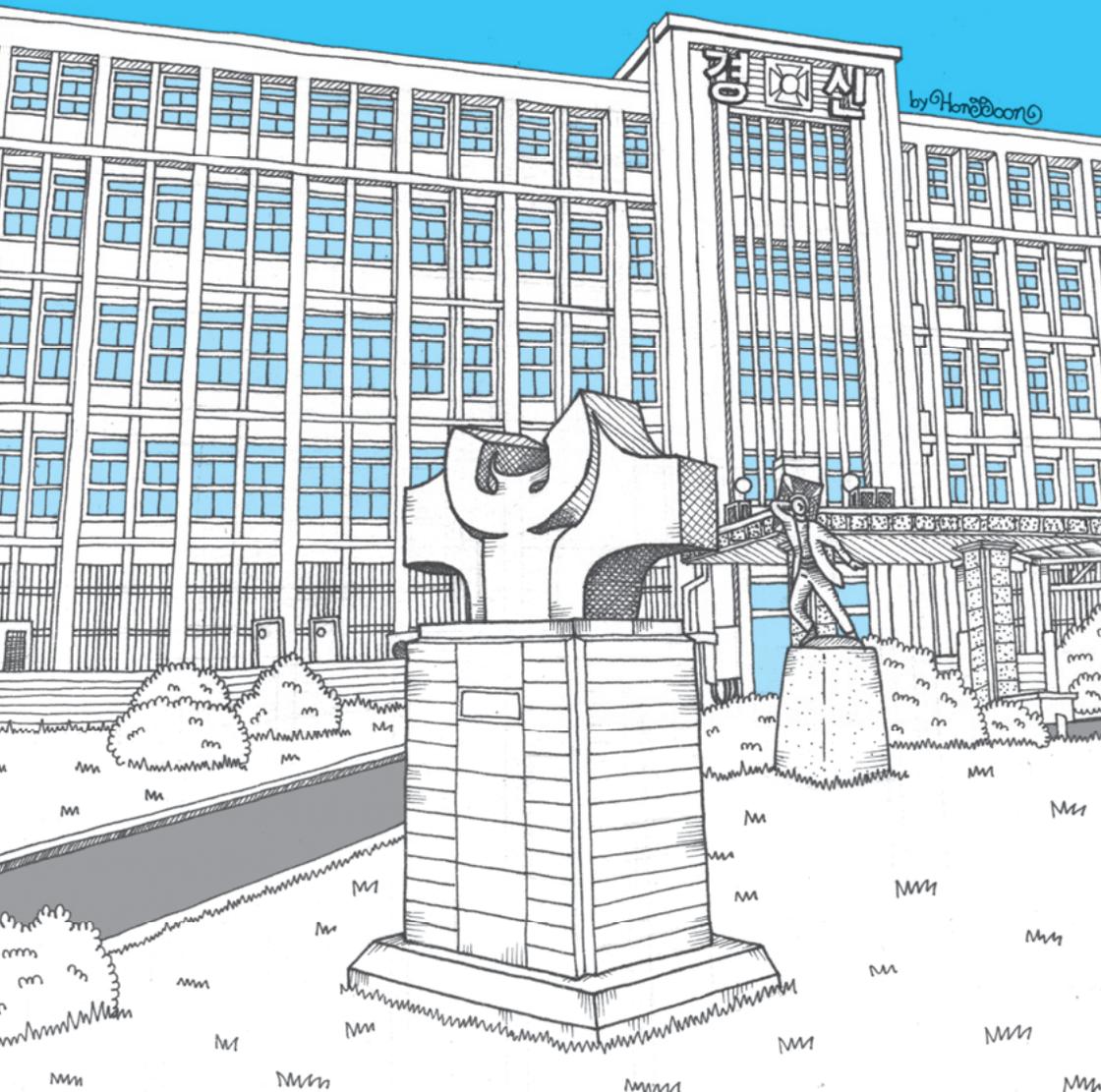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 경신학교(현 경신고등학교) |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74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에 입국하여 3일 만에 광혜원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가르침으로써 한국에 대한 봉사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그가 1886년 서울 정동의 자기 집에 붙어 있는 건물을 이용하여 고아원 형식의 학교를 창설하니, 이것이 곧 오늘의 경신중·고등학교의 전신이다. 경신학교의 설립 목적은 기독교정신 위에서 가족·사회·국가·세계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인격을 완성함과 동시에 각자의 능력과 적성과 흥미를 스스로 탐구하여 최대한도까지 자신을 발전시켜 나감을 원조하고, 나아가서는 목회자 양성에 전력하는 것에 두었다.

1901년에는 연지동에 대지를 구하여 이전하였다. 1905년에 2층 건물의 교사를 신축하고 존 디월스 기념당이라고 칭하였다. 그 뒤 이 고아원 형식의 언더우드 학당은 예수교학당(1891년)·민노이학당(1893년)·경신학교(1905년)로 교명을 바꾸어 가면서 배재학당과 더불어 신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당시 김규식·안창호 등도 이 학교에서 수학하였다. 1938년부터는 일제의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대거 폐쇄되었는데 경신학교 역시 문을 닫게 되었다. 이 때 김홍량은 1939년 3월 3일부터 교지와 교사를 미국 선교회 재단으로부터 완전히 매수하였다. 김홍량은 구한말부터 황해도 안악에서 양산중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지도자를 길러 온 인물이었기에, 선교회와 이사회에서는 김홍량이 일본인에게 이용당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학교 경영권을 이양한 것이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1957년 11월에는 현재 교사인 혜화동 산마루로 이전하여 경신고등학교와 중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 한민족문화대백과 '경신학교' 참고 -



# 25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

성경본문

---

2/25~3/2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사편 33:12)

##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말씀 속으로

- 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This is the word that came to Jeremiah from the LORD:

- 2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Listen to the terms of this covenant and tell them to the people of Judah and to those who live in Jerusalem,

- 3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Tell them that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Cursed is the one who does not obey the terms of this covenant -

- 4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the terms I commanded your ancestors when I brought them out of Egypt, out of the iron-smelting furnace.’ I said, ‘Obey me and do everything I command you, and you wi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 
- 5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Then I will fulfill the oath I swore to your ancestors, to give them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 the land you possess today." I answered, "Amen, LORD."

- 6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The LORD said to me, "Proclaim all these words in the towns of Judah and in the streets of Jerusalem: 'Listen to the terms of this covenant and follow them,

- 7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From the time I brought your ancestors up from Egypt until today, I warned them again and again, saying, "Obey me."

- 8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But they did not listen or pay attention; instead, they followed the stubbornness of their evil hearts. So I brought on them all the curses of the covenant I had commanded them to follow but that they did not keep."

- 9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Then the LORD said to me, "There is a conspiracy among the people of Judah and those who live in Jerusalem.

- 10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They have returned to the sins of their ancestors, who refused to listen to my words. They have followed other gods to serve them. Both Israel and Judah have broken the covenant I made with their ancestors.

- 11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says: 'I will bring on them a disaster they cannot escape. Although they cry out to me, I will not listen to them.

- 12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The towns of Judah and the people of Jerusalem will go and cry out to the gods to whom they burn incense, but they will not help them at all when disaster strikes.

- 
- 13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You, Judah, have as many gods as you have towns; and the altars you have set up to burn incense to that shameful god Baal are as many as the streets of Jerusalem.'

- 14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Do not pray for this people or offer any plea or petition for them, because I will not listen when they call to me in the time of their distress.

- 15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때에 네가 기뻐하겠느냐

"What is my beloved doing in my temple as she, with many others, works out her evil schemes? Can consecrated meat avert your punishment? When you engage in your wickedness, then you rejoice."

- 16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The LORD called you a thriving olive tree with fruit beautiful in form. But with the roar of a mighty storm he will set it on fire, and its branches will be broken,

11:15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때에 네가 기뻐하겠느냐

본문의 뜻은 분명하지 아니하고 칠십인역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가증한 일을 행하였거늘 내 집에 있음은 어쩔야노 서원이 나 거룩한 고기가 죄악을 없게 하였으며 혹 이것으로 피하겠느냐'

---

## 26

—  
월

- 17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

The LORD Almighty, who planted you, has decreed disaster for you, because the people of both Israel and Judah have done evil and aroused my anger by burning incense to Baal.

---

---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또다시 선포됩니다(1~8).**

예레미야 11장에서는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시는 언약은 출애굽 때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실천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4~5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고, 그들의 반복되는 죄에도 회개할 때마다 벌을 유보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으며 도리어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거듭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심마저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행하고 계십니다.

**2. 백성들의 악을 태우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9~17).**

백성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셨던 하나님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며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한 것일까요? 악의 길로 빠져들어 결국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11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듭되는 말씀에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회개의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재난을 피하고자 드러지는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15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사랑으로 심겨진 이스라엘, 아름다운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의 소산은 아름답지 못하였고 우상이라는 가증스러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가지가 꺾일 것이라는 재앙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불과 패망은 곧 그들의 ‘악’의 패망이요, 그들의 존재에 남긴 악의 흔적을 없애는 불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인도가 이어질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응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2. 많은 수의 가벼운 회개보다 단번의 진실된 회개가 더욱 값집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6:16~20** <sup>16</sup>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sup>17</sup>나는 주님께 도와 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sup>18</sup>내가 마음 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sup>19</sup>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sup>20</sup>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받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 역대하 36:1~10

오늘의 찬송 510 하나님의 진리 등대

## 말씀 속으로

- 1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And the people of the land took Jehoahaz son of Josiah and made him king in Jerusalem in place of his father.

- 2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삼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Jehoahaz was twenty-thre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three months.

- 3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The king of Egypt dethroned him in Jerusalem and imposed on Judah a levy of a hundred talents of silver and a talent of gold.

- 4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아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The king of Egypt made Eliakim, a brother of Jehoahaz, king over Judah and Jerusalem and changed Eliakim's name to Jehoiakim. But Necho took Eliakim's brother Jehoahaz and carried him off to Egypt.

- 
- 5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Jehoiakim was twenty-fiv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eleven years.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his God.

- 6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attacked him and bound him with bronze shackles to take him to Babylon.

- 7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Nebuchadnezzar also took to Babylon articles from the temple of the LORD and put them in his temple there.

- 8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The other events of Jehoiakim's reign, the detestable things he did and all that was found against him, are written in the book of the kings of Israel and Judah. And Jehoiachin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 9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팔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Jehoiachin was eighteen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three months and ten days.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 10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와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In the spring, King Nebuchadnezzar sent for him and brought him to Babylon, together with articles of value from the temple of the LORD, and he made Jehoiachin's uncle, Zedekiah, king over Judah and Jerusalem.

---

---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유다가 하향세를 걷게 됩니다(1~4).**

요시아 때의 평안과 영광이 지나가고 유다는 점차 하향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애굽에 패배한 뒤 그 뒤를 이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며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애굽에 의해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애굽에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후로부터 유다는 계속해서 정치적 독립성을 잃고 주변 국가에 의해서 왕위가 결정되고 존폐의 위협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진노를 유보하셨던 시기도 점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진노와 유다 백성들의 추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백성들의 탄식을 모두 들으셨으며, 그들의 진심어린 회개에서는 항상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으며 동시에 긍휼로 백성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비록 마지막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계속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2.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뒤를 잇습니다(5~10).**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의 행적들이 역대기에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다의 마지막 세 명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느닷내처럼 다시 겸손한 마음을 갖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불순종뿐만 아니라 곧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힘을 당한 것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을 빼앗긴 것도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렇게 완전히 한순간이 아니라 차례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 여호야קים은 요시아가 회복하기 위해 힘썼던 예루살렘에 우상의 것들을 다시 만들어 놓았습니다(5절). 결국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힘을 당한 후 그의 아들인 여호야킨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그도 짧은 재위 기간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9절). 요시아 때에 이루어진 성대한 유월절의 영광이 빛나기도 잠시, 유다에 불순종과 멸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권위를 잃었음에도 하나님의 권능은 한 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우선됨을 깨닫는 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2.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뻗는 손을 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찰나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5:4~7** <sup>4</sup>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sup>5</sup>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sup>6</sup>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 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 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sup>7</sup>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11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리며

Zedekiah was twenty-on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eleven years.

- 12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his God and did not humble himself before Jeremiah the prophet, who spoke the word of the LORD.

- 13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He also rebelled against King Nebuchadnezzar, who had made him take an oath in God's name. He became stiff-necked and hardened his heart and would not turn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 
- 14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Furthermore, all the leaders of the priests and the people became more and more unfaithful, following all the detestable practices of the nations and defiling the temple of the LORD, which he had consecrated in Jerusalem.

- 15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The LORD, the God of their ancestors, sent word to them through his messengers again and again, because he had pity on his people and on his dwelling place.

- 16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But they mocked God's messengers, despised his words and scoffed at his prophets until the wrath of the LORD was aroused against his people and there was no remedy.

- 17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He brought up against them the king of the Babylonians, who killed their young men with the sword in the sanctuary, and did not spare young men or young women, the elderly or the infirm. God gave them all into the hands of Nebuchadnezzar.

- 18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He carried to Babylon all the articles from the temple of God, both large and small, and the treasures of the LORD's temple and the treasures of the king and his officials.

- 19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They set fire to God's temple and broke down the wall of Jerusalem; they burned all the palaces and destroyed everything of value there.

- 20 칼에서 살아 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He carried into exile to Babylon the remnant, who escaped from the sword, and they became servants to him and his successors until the kingdom of Persia came to power.

- 21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The land enjoyed its sabbath rests; all the time of its desolation it rested, until the seventy years were completed in fulfillment of the word of the LORD spoken by Jeremiah.

---

---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시드기아가 끝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11~16).**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 이스라엘의 마지막 공식적인 왕입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우유부단한 왕이었으며, 끝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완악하였던 것인지, 그의 모습을 따라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14-16절). 사람들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왕의 첫 시작과 끝을 돌아보면, 처음과 끝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도자 아래에 백성들도 선하지 않은 길을 걸었던 행적이 남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선한 왕들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에는 서로 예물을 드리며 한 마음을 모으는 데에 기뻐했던 백성들도, 선한 목자가 없을 때는 길을 잃은 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넘겨졌습니다(17~21).**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한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넘겨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상의 가증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그릇과 기구들이 강탈되고, 성벽이 허물어지며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18-19절).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신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에 유다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대로 70년 동안의 포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렘 25:11). 그 70년간의 시간은 백성들에게는 포로와 고난의 시간이 되겠지만, 이미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대로 폐허로 남겨진 땅에게는 안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레 26:34). 그리고 포로가 된 시간이 차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바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데, 이는 모든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지도자에게 있어 시드기아와 같이 우유부단함과 악한 행실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합니다.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2. 온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에 의하여 운행됩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온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1:1~4** <sup>1</sup>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sup>2</sup>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 주님을 부르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sup>3</sup>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sup>4</sup>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22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In the first year of Cyrus king of Persia, in order to fulfill the word of the LORD spoken by Jeremiah, the LORD moved the heart of Cyrus king of Persia to make a proclamation throughout his realm and also to put it in writing:

- 23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This is what Cyrus king of Persia says: “The LORD, the God of heaven, has given me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and he has appointed me to build a temple for him at Jerusalem in Judah. Any of his people among you may go up, and may the LORD their God be with them.”

---

---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22).**

역대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포로 귀환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역대기의 시작과 오늘의 말씀인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셨던 일대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역사들에 얼마나 개입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듯이 항상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지켜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셨습니다(7:14). 그러나 결국 목을 굳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지켜나가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고, 모든 나라들의 위에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길과 행적들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이스라엘의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23).**

끝이 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다음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신’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단어는 역대기에서는 처음 나오는 표현으로, 곧 역대기의 내용이 이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며, 세상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비록 불순종 가운데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그의 백성’이라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어질 이야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로 삼은 이들을 끝까지 돌보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역대기 이후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2. 바사 왕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불러 주신 은혜를 다시 되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3:1~5** <sup>1</sup> 의인들이여,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sup>2</sup>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열 줄 거문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sup>3</sup>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sup>4</sup>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sup>5</sup>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 주의 부르심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안내하는 등불이요,  
우리 길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다닐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어진 장애물들과 막힌 담들을 부수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치의 병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희귀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막힌 사업의 활로를 찾아 사업장이 번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2024. 1. 10(수) 새벽기도회 중에서

# 2024, 아동팀에 주실 은혜를 기대해요!

글 교회학교 아동팀





#### 유년부 이장현 교사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값진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유년부 박진서 전도사

2024년, 올 한 해에는 유년1부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또한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분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유년1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 유년2부 유은정 교사

렉시오 디비나 *Lectio Divina* 묵상으로 시작되는 교사 경진회, 오늘의 말씀 - 예배 - 분반 활동으로 이어지는 말씀 행진이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특히 분반 활동 시간에 아이들이 말씀을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함께 나누기를 통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 유년2부 이보슬 목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딤후 4:5).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함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유년2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기쁨을 누리고 믿음이 깊어지는 유년2부,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행복한 유년2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초등1부 함신원 교사

새로이 오신 형예찬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넘치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비치길. 아이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 은혜를 가득 덮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초등1부 형예찬 전도사

올해 처음 소망교회에 부임하면서 아직 많은 것들이 새롭고 낯설지만, 초등1부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이 이 땅에 넘치길 기도합니다.



## 좁은 문

글 · 그림 이호연 (성도)

마태복음 7장

- <sup>13</sup>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sup>14</sup>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65 X 50 cm  
Oil on canvas  
2013



현화이야기 25

2월,  
우리의 고백



## 12월 31일 주일

글 김미혜 (권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매일매일이 감사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1월 7일 주일

글 김성진 (집사)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 12:46



## 1월 14일 주일

글 최창실 (권사)

우리의 믿음도 솔처럼 향기롭고 변함없기를,  
바람에 흔들려도 곧게 자라는 대나무처럼  
울곧지만 안을 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헌화를  
올려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가정이 희망이 되는 길 1 이름과 감탄

글 홍인중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교수)



가정이 희망으로 가는 길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태초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름을 아담이라 지으셨고,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sup>1)</sup>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생물들의 이름을 각각 지어 주었습니다.<sup>2)</sup>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담의 최초의 말은 배우자의 이름을 지어 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 하는 하와의 이름, 여기에는 생명의 근원, 어머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출 3:14)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인명, 지명 등을 지칭하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무려 9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름이 시작입니다.

커플은 만나서 이름을 알려 주고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호칭이 변해 가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태명<sup>胎名</sup>이라 하여 출생 전 임시 이름을 지어 줍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평생 불릴 이름을 꿈과 희망을 담아 지어 줍니다. 가정은 이름을 지어 주고, 이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가정이 희망으로 가는 길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양가 부모, 자녀, 조부모 외에 가족 관계에서 부르는 호칭은 아저씨<sup>uncle</sup>와 아주머니<sup>aunt</sup>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에는 촌수에 따라 아저씨도 백부, 숙부,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 등으로 나뉘고, 아주머니도 이모, 백모, 숙모, 고모 등 호칭이 다양합니다. 분명한 호칭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식당에 가면 주인을 부를 때 이모라고 부르지만 고모라는 호칭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모집이라는 식당 이름은 있어도 시모집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상대방을 부르는 말에는 2인칭 및 3인칭으로 남편, 아내, 여보, 당신, ○○아빠, ○○엄마, 안주인, 집사람, 부인, 처, 바깥 양반, 서방, 와이프, 파트너, 마누라, 신랑, 신부, 오빠, 자기야, 남편, 여친 등 다양합니다. 부부간에 일반적인 호칭으로는 ‘여보’, ‘당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 <sup>20</sup>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창 3:20)

2) <sup>19</sup>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sup>20</sup>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창 2:19-20上)

‘여보’의 어원을 ‘여기(를) 보오’로 봅니다. 한자로는 ‘같이 여<sup>씨</sup>’자와 ‘보배 보<sup>씨</sup>’자로 ‘보배와 같이 소중한 귀중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신<sup>당신</sup>’은 그 뜻대로 ‘당사자, 본인, 자신’이란 의미입니다. MZ 세대 부부가 호칭으로 사용하기에는 올드<sup>old</sup>하고 진부해 보이지만 ‘여보, 당신’ 호칭은 배우자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나빠지면 비하하는 말로 상대방을 부릅니다. ‘너’, ‘야’, ‘어이’, ‘인간이’, ‘저 화상’, ‘웬수’, ‘여편네’ … 소통전문가 김창옥은 그의 강연에서 행복한 가정은 약 10% 정도인데, 이들은 가정에서 배우자를 부르는 특별한 애칭이나 별칭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둘만이 아는 은어 같은 독특한 애칭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애정을 표현하는 상징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애칭은 다른 사람이 부를 수 없는 특별함을 갖고 있고, 관계의 결속과 친밀도를 나타냅니다.

가족치료사 존 가트만<sup>John Gottman</sup> 박사는 가족 관계에 마법의 비율<sup>magic ratio, Gottman ratio</sup>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긍정적·부정적인 대화 내용의 비율이 5:1이고, 친밀하고 금슬이 좋은 부부는 20:1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불화를 겪는 부부의 대화 내용은 긍정과 부정 비율의 마지노선이 1:1.25입니다. 이 비율에 가까워질수록 이혼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한편,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 긍정적·부정적 대화 내용의 최적 비율이 3:1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드러운 말은 사랑스런 이름 부르기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두 번째 말은 상대방에 대한 감탄사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창 2:23), “드디어 나타났구나”(공동번역), “이제야 나타났구나”(새번역)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남자와 여자가 한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아담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기쁨<sup>3)</sup>을 표현합니다. ‘드디어’, ‘이제야’는 외로운 아담이 하와에 대한 놀라운 가치를 인정하며 “나의 최고 중에 최고”라는 넘치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가정이 희망으로 가는 길을 걷는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부르는 따뜻한 ‘이름’과 서로를 향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아담이 말한 최초의 두 마디는 상대방에게 이름을 지어 주며 그녀의 아

3) 갱글 & 브래머, 『Main Idea로 푸는 창세기』



름다움에 감탄하며 놀라는 찬사입니다. 최근 용어로 치면, “나의 칙오! 히야! 와우!”라는 두 가지 말로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네스북에 오른 105세 퍼시와 100세의 플로렌스 영국인 부부는 결혼 생활을 ‘축복으로 만든 비결로서 “Yes, Dear” 두 단어를 꼽았습니다. 우리말로 “그래,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아, 내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약 아가서는 솔로몬과 솔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을 묘사합니다. 솔로몬은 여인을 부를 때 다양한 애칭을 사용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사랑이”라는 애칭을 사용하면서 ‘어여쁜 자’(1:8; 4:1),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2:2),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6:9) 등으로 감탄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날마다 새롭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스마트폰에 입력된 배우자, 양가 부모님, 자녀들과 가족들의 호칭을 살펴보면 애정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담아 가족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부르며 서로에게 감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가정의 희망은 시작됩니다.

김춘수 시인은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냥 몸짓이었지만 사랑으로 이름을 부를 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가족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인간과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very good, 창 1:31). 가정이 희망으로 가는 희망로 希望路에는 이름(애칭)과 감탄(찬사)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 좋은 사람이 됩시다

글 방선기 (목사, 일터개발원 이사장)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귀국하게 된 영국 기자가 우리나라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 모두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얻어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인의 보편적인 의식을 정확하게 지적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옹당 한국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에게 좋은 학교는 당연히 명문 학교를 의미하고, 좋은 직업은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알아 주는 직업일 겁니다. 좋은 배우자는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고 집안이 좋은 사람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지능 혹은 실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명문 학교는 결코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해당 분야에 흥미나 재능이 없다면 아무리 인기 직업이어도 결코 좋은 직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이더라도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다면 좋은 배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학교든, 직업이든, 배우자든 그것들이 당사자에게 잘 맞아야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모든 것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그에 적합하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좋지 않다고 평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도리어 모든 영역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들여서 무리하게 명문 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부진아 취급을 받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학교에 갔으면 정상적으로 공부했을 텐데 너무 좋은 학교에 가는 바람에 그에게는 도리어 '좋은' 학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의사 집안에서 자라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 수련을 받은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요리사가 된 경우도 보았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그에게는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모들의 욕심으로 명문가와 혼인했는데 이혼하고 만 경우도 보았습니다. 사실 명문가에서 자란 사람이 좋은 배우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지만 요점은 학교든, 직업이든, 배우자든, 좋은 것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학교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학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직업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직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배우자감이 다른 사람에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개인에게 맞는 학교나 직업, 배우자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학교나 직업, 배우자를 찾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잘 알아야 자기에게 맞는 학교나 직업을 찾을 수 있고, 원하는 배우자를 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 결국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에게 진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롬 12:3) 세상이 좋다는 것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영국 기자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를 얻어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린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력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를 얻으면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의 정의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좋은 사람이란,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표현으로 하면 덕을 갖춘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실력이 있고 인기 있는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인격과 덕을 갖추지 못했다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말 가운데 재승박덕(才昇薄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주는 있는데 덕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실력이나 능력보다 인격을 제대



로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이런 목표 없이 교육을 하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를 얻은 사람보다 말 그대로 그냥 좋은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좋은 사람을 많이 배출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인으로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좋은 사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가 육을 먹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도무지 본이 되지 못하는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좋은 사람에 관하여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은 사람”(엡 4:22-24)을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좋은 사람은 복음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좋은 사람은 교회에서만 만들 수 있으며, 교회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 때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키우는 사명, 한국교회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월 둘째 주

## 신년 감사 예배, 온 가족 새벽 기도회

소망 성도들이 '새해 감사 예배'로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쳤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한 목소리로 '새해를 맞아 주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낭독했다. 김경진 담임목사는 '홀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사 27:12-13)'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선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찬으로 성도들을 초대했다. 이튿날 오전 5시 20분, 성도들은 어둠을 뚫고 '새해맞이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였다. 조부모, 부모, 자녀까지 3대가 모두 나와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려 드렸다. 이날에 대학·청년부 회원들과 부장단은 주님께 특송을 바쳤고, 김경진 담임목사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행 16:25-34)'란 주제로 설교했다. 아브라함 가정을 예로 들며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구원의 전초기지가 되는 소망의 온 가족이 되기를 권면했다. 또 나 자신, 가정,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려 드리며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해에도 소망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베푸신 승리의 잔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복음의 진정한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1월 둘째 주

## 신년 하례회



지난 1월 5일 오후 6시, 선교관 지하1층 친교실에서 교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례회를 열었다. 담임목사로부터 부교역자, 원로·은퇴·시무 장로와 교회학교 부장, 제직회, 찬양대, 권사회,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비롯해 사무처와 수양관까지 교회를 섬기는 200여명이 모였다. 은퇴장로회 회장 박지화 장로는 교회 직분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음세대가 주님의 품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하며 대한민국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구했다. 특주로 이유허, 김재준 집사 부부가 피아노와 첼로 연주를 선보였고, 김경진 담임목사는 ‘오를 수 없는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일이 잘 풀리더라도 마음을 낮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멈추지 말자고 강조했다. 당회서기 한정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2부 순서에서 ‘9개의 목소리’란 뜻을 가진 장로총창단 ‘노나보이스’가 특송을 하고 각 부서별 하례회 참석자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큰원을 만들어 돌아가며 참석자 모두가 인사하는 악수로 모임을 마쳤다. 2024년 새해, 다양한 사역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를 오를 수 없는 바위 위로 옮기실 것을 소망한다.



2024 | 02

발행인 김경진

편집위원 윤환

유지미

김영규

홍성민

이순기

김경래

편집주간 류현조

편집장 김수진

편집팀 홍성찬

홍희선

디지털콘텐츠 조성실

디자인 워크워크

인쇄 금호인쇄

발행일 2024년 1월 27일(통권 146호)

발행처 소망교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구 신사동 624)

문의 02-512-9191

#### 알립니다

소망 성도님들의 이야기(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 신앙간증)를 보내 주세요.

**보내실 곳 : somangtpd@naver.com**


소망예배안내

예배구분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매일(월~토) 오전 5:30	본당 / 본당 지하층
주일 예배	주일 1부 오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주일 2부 오전 9: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가족예배실
	주일 3부 오전 11: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선교관 2층 / 가족예배실
	주일 4부 오후 1: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주일 5부 오후 3: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찬양 예배	주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방송시간안내

매체	구분	제목	요일	시간
라디오	서울 극동방송	생명은 빛으로	토요일	오전 9:00~9:30
	제주 극동방송	새벽강단	월~토	오전 4:30~5:00
	CBS 기독교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경남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대구 방송	소망의 소리	주일	오전 11:05~11:30
	CBS 기독교 부산 방송	라디오 교회	주일	오전 10:30~11:00
	CBS 기독교 청주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포항 방송	이 기쁜 소식을	화요일	오후 9:05~9:29
TV	CBS 기독교 방송	소망의 말씀	주일	오전 7:50~8:30 (본방)
			수요일	오전 1:00~1:40 (재방)
	CTS 기독교 TV	생명의 말씀	주일	오후 1:30~2:00 (본방)
			월요일	오전 6:30~7:00 (재방)
	CGN TV	소망교회 주일예배	월요일	오후 9:00~10:00 (본방)
	Good TV	말씀의 샘터	월요일	오후 10:40 (본방)


모바일 헌금 안내

쉽고 안전한 헌금 생활을 위하여 모바일 헌금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안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 일생 일벗



주 앞에 서는 날  
일생에 맡기신 영혼 찾으실 때  
빙긋하며 내놓을 하나의  
벗을, 그대는 가졌는가

일생일벗을 작성하셔서 2월 29일(목)까지 본당 로비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